

碩士學位論文

지역방송 TV뉴스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李 知 炫

2008年 8月

지역방송 TV뉴스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高 榮 哲

李 知 炫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李知炫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최우진 

委員

김경호 

委員

고영환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년 8월

Research on the District-TV-broadcasted News Information Routine

**-According Focus on the News Programs of Three Jeju
District Ground Cable Broadcasting Companies-**

Ji-Hyo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Churl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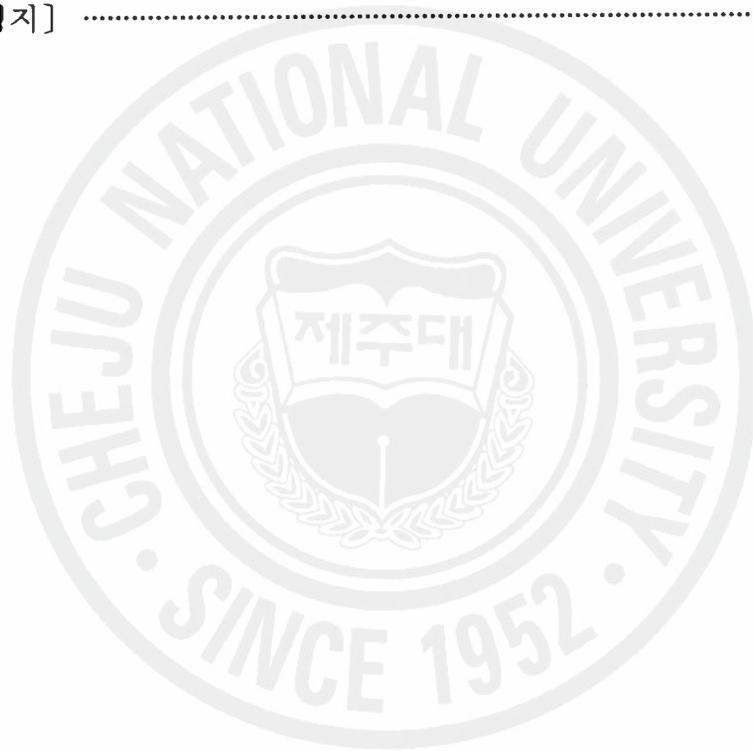
<목 차>

국문요약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4
1. 지역방송 TV뉴스에 관한 논의	4
2. 뉴스의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들	11
1) 주제의 유형	13
2) 정보원의 유형 및 수	16
3) 뉴스의 관점	19
3. 뉴스영상에 관한 논의	21
4. TV뉴스 양식의 주요요소들	24
1) 시간적 요소	25
2) 뉴스의 전달방식	27
3) 뉴스의 배치	29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2
1. 연구문제	32
2. 연구방법	34
1) 분석대상	35
2) 자료수집방법	35
3) 분석일자의 선정	35
4) 분석단위	37

5) 분석유목	37
6) 신뢰도 검증	45
IV. 분석결과 및 논의	47
1. 제주지역 TV뉴스 구성 현황	47
2.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결과	48
1) 연구문제 1-1에 대한 연구결과	48
(1) 주제유형	48
(2) 주제유형별 뉴스의 중요도	52
2) 연구문제 1-2에 대한 연구결과	55
(1) 정보원의 수	55
(2) 정보원의 유형	57
3) 연구문제 1-3에 대한 연구결과	60
(1) 관점제시양태	60
3. <연구문제2>에 대한 연구결과	63
1) 연구문제 2-1에 대한 연구결과	63
(1) 뉴스의 길이	63
2) 연구문제 2-2에 대한 연구결과	65
(1) 뉴스의 유형	65
3) 연구문제 2-3에 대한 연구결과	67
(1) 뉴스의 전달방식	67
4. <연구문제3>에 대한 결과	69
1) 연구문제 3-1에 대한 연구결과	69
(1) 영상구성방식	69
2) 연구문제 2-2에 대한 연구결과	71
(1)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	71

V.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73
1. 요약 및 결론	73
2. 연구의 한계 및 타 연구를 위한 제언	83
 [참 고 문 헌]	 85
[Abstract]	
[부록 : 코딩지]	94



〈표 차례〉

<표 3-1> 분석대상 프로그램	39
<표 3-2> 분석일자 선정결과	40
<표 3-3> 신뢰도 검증	50
<표 4-1> 뉴스 보도건수	51
<표 4-2> 방송사별 중심주제(대주제)	53
<표 4-3> 방송사별 중심주제(소주제)	54
<표 4-4> 방송사별 주제의 다양성 지수	56
<표 4-5> 방송사별 뉴스주제 보도서열	58
<표 4-6> 방송사별 헤드라인 뉴스의 중심주제	59
<표 4-7> 뉴스1건당 평균 정보원 수	60
<표 4-8> 방송사별 뉴스 1건당 정보원 수	61
<표 4-9> 방송사별 정보원의 유형(대분류)	62
<표 4-10> 방송사별 정보원의 유형(소분류)	63
<표 4-11> 방송사별 정보원의 다양성 지수	64
<표 4-12> 방송사별 갈등뉴스 보도 건수	65
<표 4-13> 방송사별 관점제시양태	65
<표 4-14> 방송사별 갈등뉴스의 유형	66
<표 4-15> 방송사별 뉴스 1건당 평균 길이(보도시간)	67
<표 4-16> 방송사별 뉴스 1건당 길이	68
<표 4-17> 방송사별 뉴스의 유형	69
<표 4-18> 방송사별 뉴스전달방식	70
<표 4-19> 방송사별 영상구성방식	72
<표 4-20> 방송사별 뉴스내용과 영상의 일치도	74

지역방송 TV뉴스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

지역뉴스는 지역민들에게 지역사회를 비춰주는 창과 같다.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안들을 지역사회의 시각으로 다루며 지역민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방송의 TV뉴스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7개월에 걸친 기간 중 2주간의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 TV저녁뉴스를 분석하였다. 표집된 뉴스는 총 576건 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과 보도형식, 영상구성방식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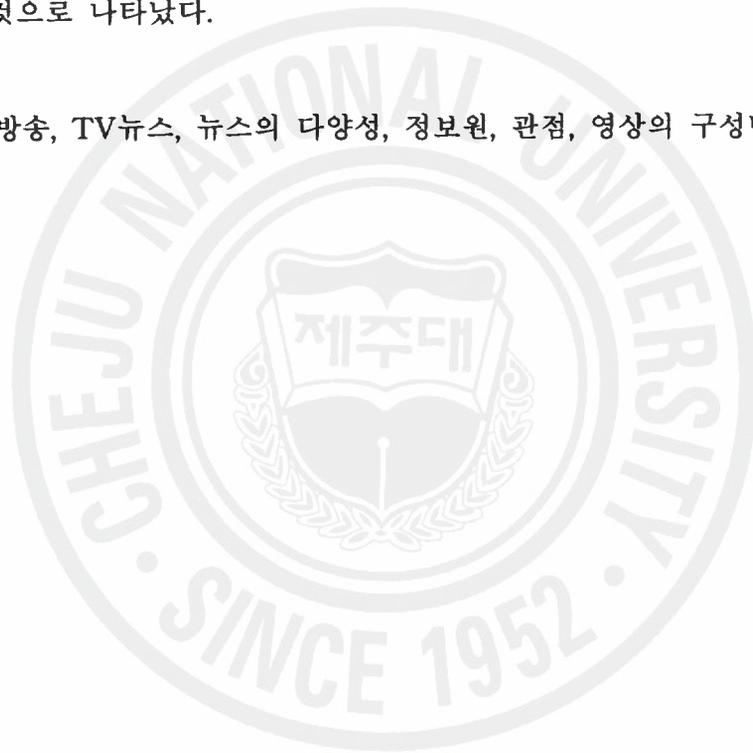
먼저 제주지역 TV뉴스 내용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심주제의 유형, 주제의 보도서열, 정보원의 수, 정보원의 유형, 갈등 뉴스의 관점제시양태를 방송사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의 TV뉴스는 1)행정/지방자치단체 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으며 2)정치/선거, 인간적 흥미 뉴스는 집중도가 높은 앞부분에 보도하고 복지/보건, 교육 뉴스는 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후반부에 보도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에 있어서 4)뉴스 1건당 평균 1.47개의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5)지방정부 정보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시민은 극소수만 활용되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 6)갈등뉴스에 있어서 대부분 단일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뉴스내용의 다양성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방송사간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역 TV뉴스 보도형식을 살펴보면 1)52.74초의 뉴스를 하루평균 약 14개 가량 구성하고 있으며 2)대부분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였다. 3) 뉴스전달방식에 있어서 기자와 카메라가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뉴스보다는 앵커가 보도화면으로 전달하는 뉴스가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 TV뉴스 형식

은 방송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뉴스 전체 보도시간이 길고 뉴스 1건당 평균길이가 길었을 때 전달되는 보도량이 더 많고 기자가 현장에서 전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은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은 1)사건 화면을 사용한 뉴스 비율이 절반가량이었으며 나머지 절반가량의 뉴스는 뉴스제작자가 뉴스내용에 따라 구성된 화면을 사용하고 있다. 구성된 화면 중에서 자료화면 사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뉴스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상을 보도하는 뉴스의 비율은 절반정도이며 뉴스내용과 연관이 없는 영상을 보도하는 뉴스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역방송, TV뉴스, 뉴스의 다양성, 정보원, 관점, 영상의 구성방식, 자료화면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근래에 들어 케이블TV(1995), 위성방송(2002), 인터넷 등과 같은 전파 매체들이 본격적으로 뉴스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그동안 정보유통 통로를 장악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중앙 지상파TV 우위의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은 네트워크 형태로 중앙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방송하는 지상파 지역방송(주정민, 2007)에게도 큰 위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케이블TV가 이미 지상파 방송의 전송로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재전송하는 역할로는 점점 더 역할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으며 둘째, 디지털 위성방송과 위성DMB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연주소나 중계국 없이 전국적인 방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어 네트워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지방 네트워크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더 넓은 지역에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전환성, 2000).

따라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단순히 중앙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역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다른 매체나 다른 채널에서 담을 수 없는 지역방송만의 강점인 '지역밀착성'을 얼마나 제대로 담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밀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장르는 뉴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마동훈, 2001; 주정민, 2007). 이를테면, 제주도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청주와 울산 등 지역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방송 시청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수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역뉴스 및 보도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철, 2005; 한국방송개발원, 1993; 최지현, 1999). 또한 현재 각

지역방송사의 로컬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면 뉴스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민에게 노출되는 양이나 내용면을 살펴볼 때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뉴스인 셈이다(한국방송개발원, 1993). 이처럼 '지역방송은 뉴스에서 시작 한다'고 할 정도로, 지역방송을 존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 가운데 하나인 지역방송이 최근 들어 케이블TV,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전파 매체들과 뉴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앙방송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청률이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TV의 시청률은 2000년 이후 그 점유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케이블TV의 시청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케이블방송협회, 2005). 또한 지역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몇 년 전에 비해 모든 지역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언론재단, 2006). 이렇게 TV뉴스 시청률이 점차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TV 주시청자들은 고정된 반면 20-30대의 젊은 층 시청자들이 인터넷 등과 같은 타 매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6). 하지만 이는 TV뉴스가 사회 내에서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올바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철, 2005; 주수성, 2002; 하수근, 2002).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지역방송의 문제점과 개선책(마동훈, 2001; 주정민, 2004), 지역방송의 편성전략(유세경, 2004; 한진만, 2006), 지역프로그램 제작과 공급방안(안수근·이준호, 2004), 지역방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김영철, 2005; 제주발전연구원, 2001)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방송과 차별화 되

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뉴스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방송 TV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위론적 주장은 많은 데 반해, 정작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는 뉴스 프로그램들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TV뉴스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더라도 중앙 TV뉴스의 전반적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들(강명구, 1990; 이준웅·황유리, 2004; 한진만·설경아, 2001)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 TV뉴스의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들(남궁협·안주아, 2007; 박소라·마동훈, 2000)은 이들이 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현안 이슈 보도와 관련된 연구들(이경미·최낙진, 2008; 최낙진, 2006)을 포함하더라도 많은 편은 아니다.

지역 TV뉴스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도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부나 행정관료 등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리고 주제의 편협성과 함께 생활뉴스의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특정 지역 TV뉴스나 특정 이슈 보도 시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TV뉴스 보도관행의 결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3개 지상파 방송 TV뉴스의 보도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방송의 전반적인 뉴스 보도관행 및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타 지역방송의 뉴스 보도관행 및 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만을 갖고서는 제주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방송들이 실제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중앙 TV뉴스와 타 지역의 TV뉴스 보도관행과 간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제는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TV뉴스는 세상을 비추는 창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주지역방송들이 주로 제주의 어떤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는지 파악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지역방송 TV뉴스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제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안수근, 1988). 그러나 이 당시의 연구 주제와 내용은 지역 방송의 기능 및 역할, 지역방송의 조직, 편성, 시장 분석 등 주로 지역방송 자체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방송 현상과 산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정상윤, 2007). 그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거나 지역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 TV뉴스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독립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역 언론의 한 부분으로서, 당위적인 역할과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지역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 등과 같은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그리 많지 않다.

지역방송 TV뉴스의 내용분석 연구는 중앙방송 TV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행해진 지역방송 TV뉴스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1)지역 TV뉴스의 전반적인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 2)지역의 특정 현안 보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간의 지역방송 TV뉴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중앙방송 TV뉴스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세경(1999)은 전국 각 지역을 경제적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 뒤 대·중·소 지역의 TV뉴스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뉴스의 주제, 뉴스의 내용(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중립적인 뉴스), 지역성, 심층성, 기사의 제시방법, 사진, 도표와 같은 보조적인 자료제시 여부, 화면과 보도내용과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대·중·소 지역의 TV뉴스는 공통적으로 지역정책에 관한 뉴스

가 가장 많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뉴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보도의 심층성에 있어서 단순사실 전달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영상과 기자들의 담론은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층성, 영상과 기자들의 담론간의 일치성등과 같은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중·소 규모의 방송국이 대규모 방송국에 비해 뉴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세경(1999)은 뉴스의 질은 뉴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지역방송은 뉴스 프로그램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뉴스의 다양성과 경제적 규모와의 관계를 규명한 또 다른 연구는 배현석(2002)의 연구이다. 배현석(2002)은 대구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의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지역 TV뉴스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루에 제공하는 뉴스토픽의 절반 이상이 타 방송국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독특한 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토픽 13가지 유형 가운데 하루 평균 7가지 유형의 토픽이 골고루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방송사 공통적으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문화/예술뉴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 카메라가 함께 현장에 투입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기자와 카메라가 함께 투입되지 않는 '앵커+보도화면 제시'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석(2002)은 뉴스제시 형식이 이처럼 다양하지 않은 것은 지역방송의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역방송의 TV뉴스가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더 많은 재정 및 인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동훈(2001)은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방송 TV저녁뉴스를 비교분석하였다. 전국 각 지역을 대·중·소로 구분한 뒤 부산, 광주, 전주, 원주 4개 지역을 표집하여 뉴스의 내용(중심 주제, 정보 채널)과 뉴스의 형식(화면 제시방법의 다양성, 기자 등장 여부, 자막 및 그래픽과 같은 화면자료 표시방법, 인터뷰나 사진 여부, 방송사간의 뉴스 중복율)의 다양성, 뉴스의 품질(주제의 제시방식, 뉴스의 심층성, 하루에 보도되는 평균 주제의 개수, 뉴스 1건당 정보원의 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인 로컬뉴스의 주제로 행정/자치단체, 지역경제/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뉴스는 보도 자료, 기자회견 등 공식적 채널에 의해 수집된 뉴스가 많고 대부분 일

방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TV뉴스는 심층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제의 다양성이나 정보원의 수 등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뉴스를 제작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들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동훈(2001)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방송 뉴스 제작팀의 자구적인 내부 경쟁력 강화 전략이 부재하거나 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지역 TV뉴스 개선을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남궁협·안주아(2007)는 광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방송 뉴스양식의 특징과 지역방송 뉴스보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뉴스양식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뉴스의 길이와 수, 방송사간의 중복주제 수, 보도형식, 기사의 주제, 기사유형, 기사의 성격, 기사제시유형, 기사접근방법, 앵커의 태도, 기자의 태도, 인터뷰어 수, 전반적인 논조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각 방송사간 뉴스의 중복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루는 주제는 사회관련 뉴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안의 제시나 심층취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제시 방식에 있어서 전체 뉴스의 50%이상이 남자앵커+보도화면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남자앵커+기자+자료화면으로 전달되고 있고 보도형식이 단순하고 획일적이라는 점, 앵커 및 기자의 성별 편중이 심하다는 점 등은 세 개의 방송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남궁협·안주아(2007)는 지역TV뉴스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과 같은 인력구조의 문제 때문이며 둘째, 보도국의 간소한 편집회의로 인해 뉴스선택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줄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자들이 보도윤리 문제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위축된 보도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주정민·박복길(2007)은 광주와 부산지역의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지역방송 뉴스의 특성과 구성방식이 지역성 구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뉴스를 다양성, 객관성, 심층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뒤 지역성과의 관계를 밝혔다. 다양성은 뉴스 보도 시 얼마나 다양한 보조 자료와 화면을 제시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기사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취재원과 인터뷰어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객관성은 크로마키 태도와 리포팅 태도, 주관적 판단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심층성은 단순취재인지 아니면 기획

취재인지, 하나의 이슈만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방송 뉴스의 지역연관성은 뉴스의 다양성과 객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제는 다양성과 심층성과 관련이 있었고 객관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방송 뉴스가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객관성을 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심층적 보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방송 뉴스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맥락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최낙진(2006), 최낙진·이경미(2008)는 제주지역 방송뉴스들이 지역 현안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최낙진(2006)은 제주지역 4개 방송사(KBS제주, 제주MBC, JIBS, KCTV)가 주요 시청시간대에 보도하는 뉴스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뉴스를 선택하여 기사유형, 정보원, 뉴스프레임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설기사가 적은 반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보원 유형에서는 지방정부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과 정책 프레임 위주로 보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의제에서 여전히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적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 정치인과 같은 소수의 정보원이 공공의제의 관리자로 채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사유형, 정보원, 뉴스 프레임의 다양성은 방송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나리와 관련한 제주지역 TV뉴스 보도 특징을 연구한 이경미·최낙진(2008)은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제주지역의 3개 지상파 방송사와 KCTV에 보도된 태풍 '나리'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기사유형, 정보원 유형, 핵심주제 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재난상황에서 제주지역 TV뉴스는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경우 기상청과 전문가 집단보다는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등장하였고 뉴스의 유형의 경우 단발성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TV뉴스는 재난보도 시 예방적 또는 사후 대책적 차원의 보도보다는 상황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 4개 방송사 모두 재난보도에 대한 방송시스템 매뉴얼 없

이 재난사후에 즉각적이고 의례적인 대응만 했을 뿐 공영방송과 상업방송간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위에 제시된 2개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개 방송사와 1개 케이블 방송사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특정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 분석결과 기사 유형, 정보원 유형에 있어서 4개 방송사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앙방송 TV뉴스에 관한 연구는 지역방송 TV뉴스 연구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간의 중앙방송 TV뉴스에 대한 연구들은 첫째, 방송 조직 구조 및 취재관행에 대한 연구(김영석, 1993; 박천일, 1995) 둘째,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강명구, 1990; 한진만·설경아, 2000; 윤호진, 2004) 셋째, 뉴스 수용자에 대한 연구(윤석민, 1995; 조영현, 2002)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명수(1999), 손승혜(1999), 이준용·황유리(2004)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명구(1990)는 우리나라 중앙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보도 관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뉴스와 국제뉴스의 비율, 뉴스의 중심 주제 유형, 단신과 비단신 뉴스의 비율, 뉴스 복합성, 뉴스의 내용과 영상의 일치도, 현장음의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TV뉴스는 정치뉴스(17.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산업(12.5%), 범죄/경찰(12%) 뉴스 순으로 많으며 정보 수집은 대부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피상적인 현상이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건 원인, 사건해석까지 보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의 복합성 항목에서 과정과 결과만을 보도하는 뉴스의 비중이 전체기사 절반을 넘어, 대부분 심층성이 부족한 단순보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TV영상은 뉴스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손승혜(1999)는 우리나라 TV뉴스의 내용과 구성형식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3개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TV저녁뉴스와 미국, 영국, 일본의 TV저녁뉴스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뉴스 보도건수와 뉴스 보도시간, 뉴스의 심층성, 주제의 다양성, 뉴스가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TV뉴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뉴스 1건당 길이가 짧은 뉴스를 수적으로 가장 많이

나열하는 백화점식 보도구성을 하고 있으며, 정치뉴스와 범죄뉴스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건/복지등과 같은 분야의 뉴스는 소외되고 있다. 또한, 이름난 정치인 중심의 정치뉴스와 강도가 높고 자극적인 화면이 제공되는 범죄사고 뉴스가 높은 뉴스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용·황유리(2004)는 한·미·영·일의 공영방송과 미국의 지역방송사가 보도하는 TV저녁뉴스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TV뉴스의 내용과 구성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간의 선행 연구결과(강명구, 1990; 손승혜, 1999)에서 나타난 한국TV뉴스의 특징이 2003년에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형식(뉴스아이템의 길이와 보도건수, 앵커와 리포팅의 비중, 제목과 자막의 사용)과 내용(뉴스주제, 뉴스의 심층성, 정보채널, 뉴스가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국내정치와 경제, 그리고 범죄/사건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뉴스 중에서 절반가량이 심층적이지 못한 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TV뉴스의 심층성 부재 경향은 1999년에 실시된 손승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보수집에 있어서 다른 나라는 공식적인 채널에 의존한 뉴스보다 기자의 개발 취재로 이루어진 뉴스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TV뉴스는 공식적인 채널 의존도가 높고 기자들의 개발취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실시된 이창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공식적인 채널 의존도는 55.2%에서 60.3%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전달방식에 있어서 앵커+기자 리포트+녹화화면 방식으로 제시된 뉴스가 가장 많았으며 위성이나 전화를 통해 현장을 연결하여 보도하는 뉴스의 비율은 4개의 분석대상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TV뉴스의 보도특징은 뉴스 기획과 제작에 좀 더 정성을 쏟는 방식이 아닌 취재부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뉴스제작 과정과 취재 시스템의 관행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TV뉴스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역방송 TV뉴스와 중앙방송 TV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방송 TV뉴스의 경우 첫째, 지역방송의 TV뉴스 주제들은 분석유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개 행정과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뉴스의 출처 및 취재경로를 보면 대다수의 뉴스는 공식적 채널에서 제공한 자료

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뉴스가 많지 않다. 셋째, 대다수의 뉴스가 기자의 해설이나 분석 없이 단순 정보전달에 그치고 있다. 즉, 절대 다수의 뉴스가 원인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스트레이트(Straight)성 뉴스이다. 넷째, 기자와 카메라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어 앵커가 혼자 전달하는 뉴스가 많다.

한편 우리나라 중앙방송 TV뉴스의 경우 첫째, 정치뉴스와 경제, 범죄/사고 뉴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둘째, 정보수집에 있어서 보도 자료나 공식적인 인터뷰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한 TV뉴스 형식에 있어서 앵커+기자 리포트+현장녹화화면 방식으로 전달되는 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동시에 살펴보면 뉴스 주제와 정보채널에 대한 편중성, 심층성 부재 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방송 TV뉴스와 중앙 지상파 3사 TV뉴스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보도 주제유형이나 취재경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보원의 숫자나 뉴스의 길이, 뉴스전달방식의 다양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TV뉴스의 특징은 주로 뉴스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이다. 즉, TV뉴스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TV뉴스를 분석할 때 기사 스토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TV뉴스 주제 유형이나 정보채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지만 어떤 뉴스에 어떤 영상이 함께 보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성 등은 담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내용의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도 주제의 유형, 방송사간의 중복률, 정보채널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내용의 다양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정보원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뉴스영상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다음은 지역TV뉴스 내용의 분석에 앞서 뉴스보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과 뉴스영상을 둘러싼 핵심 논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뉴스의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들

뉴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현실반영론’과 뉴스는 구성된 현실이라는 ‘현실 구성론’ 시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시각은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뉴스는 사회현실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뉴스는 곧 일어난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언론매체는 공정하고 균형된 방법으로 현실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또 반영해야만 한다. ‘기자가 거울로써 반사한 기사’는 사건 자체와 일치하면 할수록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매스미디어의 뉴스는 사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사회를 수동적으로 비추는 것이 되므로 뉴스의 중요한 의제설정기능과 여론 형성의 기능이 무시되며, 뉴스수집과 보도에 관한 관행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김원용, 1991). 그래서 많은 새로운 경향의 연구들은 이러한 전통적 뉴스관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후자의 시각은 뉴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해석되고 규정된 것’으로 보았다. 즉,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기까지는 여러 ‘뉴스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도달된 ‘뉴스’란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규정’이라는 것이다.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사구성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사화된 메시지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용자들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매스미디어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현실이란 실제 자체라기보다는 미디어 뉴스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진 현실이다. 맥콤과 쇼(M. McCombs & D. Shaw, 1972)에 의하면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일종의 탐조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탐조등이 어디를 비추느냐는 어떤 쟁점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주목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사건, 언론인들의 특정한 관행과 의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강상현·채백, 1996). 이와 같은 관점은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 토픽은 어떤 사건이 현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뉴스

1) 캐터건(Cattaghan)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사회를 지탱하는 거울’이며 보가르트(Bogart)는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감각범위를 넘어서지만 감각 확장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재현해 주는 현실의 거울이다’.

의 가치보다는 언론 종사자들의 판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스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여러 사상들 가운데 특정 주제나 이슈들을 강조 부각시키게 되면 수용자들은 그러한 이슈들을 역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반다이크(Van Dijk, 1988)에 의하면, 뉴스는 뉴스생산조직의 특성과 뉴스제작 관행 등의 사회적 요인과 뉴스 생산과 소비과정에 개입하는 개인의 사회인지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뉴스의 길이, 분량, 앵커 소개와 리포팅의 배분, 자료의 배치와 제시방식등과 같은 형식적 특성은 물론 주제의 선택, 정보원의 선택, 뉴스가치의 적용 등과 같은 내용적 특성도 뉴스제작 업무의 일상화, 유형화, 정형화에 의해 강화된다.

따라서 후자의 관점을 택하면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송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방송사들은 중요하지 않게 다루거나 아예 뉴스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방송사에서는 짧은 문장과 짧은 길이로 가볍게 다루는 반면 어떤 방송사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뉴스의 가치 또한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내포하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뉴스 제작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선택이 뉴스의 길이, 뉴스의 유형, 뉴스의 내용 등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뉴스의 제작 방식과 내용은 과거와는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에 비해 기사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사에서 언론인의 개인적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는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심훈, 2005). 이처럼 뉴스의 내용과 생산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고 이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뉴스의 다양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의 다양성은 연구의 대상과 그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심훈, 2005). 예를 들어 뉴스의 다양성은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의 이념적 성향의 다양성으로 평가되기도 하고(Herman, 1988), 기자들의 성적, 인종적, 계급적 다양성과 같은 언론 종사자의 인적 구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Haws, 1991). 뉴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뉴스의 다양성은 기사의 분량, 기사 장르, 형식 등을 기준으로 다양성을 평가 할 수도 있다(Hansen, 1980). 그

리고 보도자료 활용정도, 기사유형, 프레임 등으로 뉴스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최낙진, 2006). 따라서 뉴스의 다양성 분석은 어느 한가지의 영역에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현석, 2002; 심훈, 2005)고 본다.

이민웅(1996)은 뉴스의 다양성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입장과 관심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뉴스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이슈들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뉴스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주제유형의 다양성’ ‘정보원 수와 유형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으로 정의하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제의 유형

뉴스 제작자들은 공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뉴스가 되어야 하며 공간, 시간, 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Bill Kovach & Tom Rosenstiel, 2001) 즉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범죄, 기아, 부정부패, 청소년 기출, 교통사고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와 주제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날마다 결정을 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하면 전체 사회의 모습 및 전체 구성원들의 모습을 다양하고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뉴스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뉴스가 특정 주제에 대해 편중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심훈, 2005).

뉴스의 특정 주제에 대한 편중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스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여러 사상들 가운데 특정 주제나 이슈들을 강조 부각시키게 되면 수용자들도 그러한 이슈들을 역시 중요하게 인

식하게 되기 때문이다(M. McCombs & D. Shaw , 1972). 그렇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 등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강조하는 보도내용과 보도방식 등은 항상 학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이들의 보도내용들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점이 다양할수록 그만큼 수용자들이 볼 수 있는 세계도 다양해지고 더불어 여론도 다양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문제라든가, 청년실업실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해주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는 세상 지도 속에는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론의 토대가 되는 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신의 의견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즉, 뉴스토픽에 관한 연구는 언론의 뉴스 주제에 대한 기호 또는 편향성을 밝히는 데에도 유용하며, 언론이 공공의 전달자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모습을 투영하기 위해 뉴스의 취재범위와 대상을 고루 분산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TV뉴스 주제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만석(1999)은 중앙 지상파 3사 TV방송 뉴스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들이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밝혀냈다. 분석결과 정치, 경제/산업, 범죄/사고 등 전통적인 분야(52.2%)에 대한 보도비율은 높은 반면 보건/복지, 환경/공해, 교육, 과학/기술과 같이 새로이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높아 가는 분야(17.6%)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 지상파 3사 TV방송 뉴스를 대상으로 뉴스주제의 보도순위와 뉴스의 길이 등을 연구한 유세경(199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정치뉴스의 경우 전체뉴스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뉴스에 비해 길이도 길고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현·손승혜(1999)는 우리나라 지상파 3사의 저녁뉴스를 대상으로 뉴스 보도서열과 오늘의 중요뉴스 코너 뉴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TV뉴스는 다른 주제보다는 정치외교유형 뉴스가 먼저 제시되고 있으며 오늘의 중요뉴스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주제보다는 정치외교유형 뉴스를 중요한 뉴스로 간주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선행 연구결과에서도(강명구, 1990; 한국방송개발원, 1997) 정치관련 뉴스가 다른 주제에 비해 더 많

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도 경향은 3개 방송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준웅·황유리(2004)는 최근 한·미·일·영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 저녁뉴스 분석을 통해 미·일·영 3개국의 TV뉴스에서는 국제뉴스 비중이 높은 반면에 한국 TV뉴스에서는 여전히 정치, 경제뉴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TV뉴스가 이와 같이 정치뉴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분단이라는 특수성, 정당한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뉴스를 이용해 왔던 관행, 힘든 민주화 과정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시대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심훈, 2005).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최근의 연구에서도 정치 뉴스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치뉴스를 중요시하는 특성은 우리나라 TV뉴스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뉴스 6,000건 이상을 분석한 PEJ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전통적인 정부관련 뉴스와 국제뉴스는 3/1로 줄어든 반면에 개인의 건강문제, 라이프스타일, 오락 관련 뉴스들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훈, 2005).

이상의 중앙 TV뉴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앙TV뉴스는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방송 TV뉴스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로는 남궁협·안주아(2007)가 있다. 남궁협·안주아(2007)는 광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의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정치/행정, 사회, 경제, 문화/체육/관광, 생활/날씨 뉴스의 보도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관련 뉴스 보도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 정치/행정, 문화/체육/관광 뉴스 순으로 그 보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광주·원주·부산·전주 등 4개 지역의 지상파 3사 저녁뉴스를 분석한 결과(박소라·마동훈, 2001)에서는 행정과 자치단체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은 지역경제와 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적인 뉴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공중파 TV 뉴스의 다양성에 관해 연구한 배현석(2002)은 각 방송사들이 제공한 뉴스 토픽들 중에 정치/행정 뉴스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제/

산업, 예술/문화/스포츠, 범죄/법원 순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영철(2003)은 제주지역의 언론들은 행정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 및 시책을 중요뉴스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도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뉴스가치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취급함으로써 지방정부 홍보와 치적선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방송 뉴스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분석유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 행정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적인 뉴스보다는 정치, 행정, 경제와 같은 전통적인 뉴스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중앙방송 TV뉴스와 지역방송 TV뉴스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TV뉴스는 특정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생활밀착적인 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직 언론인들은 이와 같이 TV뉴스가 주제 편향성을 보이는 원인중의 하나로 출입처 제도를 꼽았다. 오히려 출입처가 없는 기자들이 훨씬 진지하게 다양한 앵글로 언론 현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심훈, 2005).

2) 정보원의 유형과 수

정보원이란 '정보의 출처'를 말한다. 방송에 등장했거나 기사에 인용된 사람 또는 단순히 배경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사를 제보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자가 관찰했거나 인터뷰한 인물을 총칭할 뿐만 아니라 단체, 문서나 자료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임영호·이현주, 2001). 이러한 정보원은 뉴스가 같은 주제, 같은 이슈를 다룬다 할지라도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의 성격이나 내용이 판이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뉴스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뉴스 수용자들은 정보제공자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해당이슈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보원이 뉴스구성의 1차적 규정자가 될 수 있으며 정보원의 분산정도가 클수록 뉴스내용의 다양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영철·최낙진, 2006). 그리고 뉴스에 사용된 정보원의 수는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

보와 관련이 깊으며 기자들이 정보의 사실검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만약 하나의 정보원이나 하나의 관점에 집중된 정보원만을 활용할 경우 한정된 정보원의 가치와 견해가 재생산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원의 수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의 정보원 활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강명수, 1990; 이원락, 1991; 이재경·김진미, 2000; 이준웅·황유리, 2004; 한국언론재단, 2001, 최낙진 2006)들은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뉴스에 활용되는 정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미국, 영국, 일본의 TV뉴스와 우리나라 TV뉴스의 정보원 활용 관행을 비교분석한 연구(김은주, 2003)에 의하면, 외국 TV방송은 뉴스 1건당 평균 4.23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TV뉴스는 뉴스 1건당 평균 2.5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TV뉴스의 경우 미국의 지역방송 TV뉴스는 뉴스 1건당 평균 2.9개의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방송 TV뉴스는 뉴스 1건당 평균 1.4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라·마동훈, 2000; 이준웅·황유리, 2004).

둘째, TV뉴스의 정보원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리와 같은 공식적 권력집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최낙진(2006)은 제주지역의 정책 이슈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의 유형은 지방정부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공공의체의 관리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배현석(2002)은 대구지역 TV뉴스는 뉴스수집에 있어서 행정기관, 검찰, 경찰등과 같은 공공기관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뉴스수집통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TV뉴스가 정보원으로 공적인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권위를 인정받은 공적인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보도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취재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권력집단에 대한 편중은 정부 등의 공식기관 또는 권력층에서 내보내는 정보 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김재영, 2004).

이와 같은 관행은 취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출입처 제도가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출입처 제도에 의존한 취재 관행은 오히려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의 획일화와 편중화를 초래하여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세 번째 특징은, 기자들은 정보습득을 위해 기자의 자발적 채널보다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재판과 같은 공식적 채널²⁾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강명구, 1990). 역사적으로 보도자료, 기자회견, 간담회, 재판등과 같이 언론기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공식적 채널은 가장 경제적이고 손쉽게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이다. 특히, 보도 자료는 기자들에게는 정보의 확실한 공급선이고 정부에게는 공식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 TV뉴스 제작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영·일 TV뉴스와 우리나라 TV뉴스의 정보채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이준웅·황유리, 2004) 우리나라 중앙3사 TV뉴스는 미·영·일 TV뉴스에 비해 보도자료와 인터뷰 의존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기자들의 분석과 개발 취재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방송사간의 뉴스토픽의 중복율을 분석한 이창현(2004)은 방송사간 중복된 뉴스 대부분이 공식채널을 통해 수집된 뉴스라는 것을 밝혔다. 즉, 공식채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뉴스 내용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박용규(1990) 역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해 기사의 획일화, 언론의 취재원 종속 및 대변, 심층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기사의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혁남(2002)과 장호순(1999)도 공식채널에 의한 높은 의존도는 정보의 편향성, 획일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마저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보도 자료등은 정보원들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들의 가치관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보원 활용 관행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의 정보원 구성은 편향적이어서 사회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 또한 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정보채널이란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를 일컫는다. 정보채널은 대개 공식적 채널, 비공식적 채널, 기자들의 자발적인 채널로 나눌 수 있다.

3) 뉴스의 관점

지역방송 TV뉴스의 정보원 활용 관행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뉴스가 한 개의 정보원을 토대로 만들어 지고 있고, 2-3명의 정보원을 토대로 생산된 뉴스의 경우도 정보원 구성은 편향적이어서 사회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 또한 일부 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뉴스 속에 등장하는 정보원이 많다고 해서 뉴스 내용의 다양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 제주도 당국, 해군사령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주민대표 등 4명의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뉴스의 내용이 단일관점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 뉴스는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즉 정보원의 유형이 다양하고 수적으로 많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다면 뉴스의 내용이 다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방송이 우리 사회의 갈등적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제시할 경우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뉴스 내용 속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원의 유형과 수의 분포를 세는 것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 제시가 실현 되었을 때 진정한 정보원의 다양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당사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주요 현안을 쟁점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지역방송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다룬다면 이들의 입장이 재생산되게 된다. 즉, 뉴스가 하나의 관점만을 제시할 경우 방송과의 접근이 용이한 일부 정보원의 가치와 견해가 재생산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언론이 현실을 구성한다(양승목, 1997)는 명제에 따르면 뉴스는 그 사건의 본래 속성보다는 그 사건에 개입된 정보원과 언론사 내부의 프레임 구성을 통해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낙진, 2006). 따라서 지역방송이 사회적 또는 집단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의제 설정자로서 그

리고 사회적 갈등의 중재 및 계도자로서 어떠한 관점과 틀을 갖고 세계를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방송의 목표가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면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즉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사안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보도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규범적 역할이며, 다양한 종류의 시각에서 그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 방송사들의 TV뉴스가 갈등적 사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관점 제시양태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연구자의 과묵한 탓인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 종합일간지들이 갈등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재영·이완수(2007)가 한국의 10개 전국 종합 일간지 1면기사 가운데 갈등기사만을 대상으로 관점제시 양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단일 관점으로 구성된 기사는 28.3%, 대체적으로 단일 관점인 기사는 43.4%로, 사실상 단일 관점의 기사는 10개 중 7개(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복합적 관점의 기사는 28.3%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보도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005년에 개발한 뉴스평가 기준에 적용해 본다면 국내신문 머리기사의 고급기사의 비율(11.1%)은 미국 주요 신문 1면 전체의 고급기사의 비율(33%)이나 미국 4개 대형신문 1면 전체 고급기사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지역방송 TV뉴스도 신문의 기사들처럼 우리사회의 갈등 사안에 대해 대부분 한 쪽의 견해만을 대변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의 다양성은 정보원의 유형과 수가 많아야 함은 물론 다양한 관점이 많이 제시될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관점 제시양태는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뉴스 내용의 다양성 정도를 평가는 주요 척도가 된다고 본다.

3) 보도지수는 투명취재원, 관점, 이해당사자 등 3개 항목으로 측정되는데, PEJ는 투명취재원과 이해당사자가 4개 이상 포함되고 복합적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기사를 고급기사로 정의하고 있다.

3. 뉴스영상에 관한 논의

한국의 뉴스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영현, 2002; 한국언론재단, 2006)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주로 TV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신문기사가 TV뉴스보다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반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보원으로서 TV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신문읽기보다 텔레비전 보기가 더 쉽다는 이유 등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날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기 원하는데 있다. 즉, 뉴스영상을 통해 오늘 일어난 사건이나 사안들을 직접 확인하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TV뉴스의 영상은 수용자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뉴스영상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말이 없어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으나 말 그대로 정의한다면 TV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 사고 등의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촬영되고 편집된 영상, 즉 뉴스보도에 사용되는 영상을 말한다. 이종수(1999)에 의하면 뉴스영상은 '보도화면'이며, 보도화면이란 뉴스보도를 위해 미리 준비된 녹화테이프이다. 보도화면은 최근의 현장을 녹화한 화면, 사운드 바이트, 자료화면, 구성된 화면, 상징 샷 화면, 기자 스탠드 화면으로 구성된다⁴⁾.

이러한 뉴스 영상은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뉴스영상이 쉽게 포착될 수 없는 경우에도 뉴스제작자들에게는 정해진 포맷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보도를 가능하다(Giffin, 1992). 즉, 뉴스 제작진들은 예상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장소, 사람을 촬영하여 이를 TV뉴스 영상에 이용하기도 한다(Altheide, 1976). 이러한 경우 뉴스제작자들은 실제 사건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관계화된 샷과 편집기법에 의존하여 시각적으로 흥미를 끄는 뉴스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과 지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미

4) 사운드 바이트란 인터뷰나 기자회견등의 화면을 뜻하며 자료화면은 청각적 뉴스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유사한 경험 또는 간접적 관련을 가진 과거의 화면을 말한다. 구성된 화면은 실제 사건의 녹화장면이 없거나 뉴스의 내용상 사건샷이 불가능할 경우, 사진, 문서, 그래픽, 글자 등을 사용하여 증거물로 제시되는 구성된 화면이며 상징샷 화면이란 특정한 기관, 사람, 사건, 사물을 상징하기 위해 장소, 건물, 사람 등을 커버 샷으로 표현하는 화면이다.

지 조각 조각들을 편집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뉴스의 영상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뉴스영상이란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뉴스 내용에 따라 뉴스제작자들에 의해 구성되어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진 틀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뉴스영상은 독립적인 서사구조를 갖지 못하고 청각적 텍스트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 때문인지 그간의 TV연구는 텍스트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뉴스 영상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최민재, 2004).

뉴스영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뉴스영상이 선거보도, 전쟁보도와 같은 특정 이슈 보도에서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전반적인 뉴스 보도에서 뉴스내용과 영상은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중 본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뉴스 보도에서 뉴스 내용과 영상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1)언어적인 뉴스내용과 시각적인 영상과의 일치도 2)뉴스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한 영상 구성의 방식에 주목하여 왔다.

김우룡(2002)은 앵커와 기자의 담론과 영상의 일치도는 그 사건이나 사안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전달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 하였다. 보도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요인으로 특정 장면의 부각 여부; 기술적인 실수 여부, 실증적 자료의 제시 여부와 더불어 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를 제시 하였다. 강명구(1990)에 의하면 뉴스 수용자들은 뉴스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영상을 제공했을 때보다 뉴스의 내용과 일치되는 영상을 제공했을 때 보다 더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보다 더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즉, 뉴스의 내용과 영상이 일치하였을 때 정보전달 효율성이 높아지며 뉴스의 객관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3개 지상파 TV 저녁뉴스를 대상으로 뉴스내용과 영상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TV뉴스 영상의 상당부분이 뉴스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텔레비전은 본질적으로 영상매체이지만 한국 3개 지상파 TV뉴스에서는 언어적인 것이 영상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가령 경제뉴스에서 물가의 전체적인 동향을 이야기할 때는 백화점 장면을 보여주고, 과소비를 말할 때는 백화점의 양주매장을, 개인 서비스요금 상승에 대해 언급할 때는 대형 음식

점이 비춰진다. 이런 경우 영상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언어적인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정해진 장르 관습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된다.

이종수(1999)는 1998년 9월 한국 지상파 방송3사 TV뉴스 3일치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텍스트 관련성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상과 뉴스내용과의 관련성을 4가지 유형(직접적 연관, 간접적 연관, 축어적 연관, 무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에 있어서 간접적 연관을 보이는 경우(49.1%)가 직접적 연관(44.7%)을 갖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 3개 지상파 TV뉴스는 뉴스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영상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상을 더 많이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3개 지상파 TV뉴스 영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상을 6개 요소(사건화면, 로케이션 샷, 사운드 바이트, 자료화면, 구성화면, 기자 스탠드업)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중 사건화면과 사운드바이트, 기자 스탠드업은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화면이며 자료화면과 로케이션 TIT, 구성화면은 작위적으로 구성된 화면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화면이 60.62%로 나타났으며 로케이션 샷을 사용하는 경우는 7.74%, 사운드 바이트는 8.89% 자료화면은 7.74%, 구성화면은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3개 지상파 TV뉴스 영상의 40% 가량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구성되어진 화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TV뉴스 영상의 많은 부분이 언어적 내용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정형화된 방식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민재(2005)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뉴스영상을 구성하는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뉴스 영상은 보도내용과 유사한 화면구성에 대한 지나친 추구, 짧은 사운드바이트의 사용, 심지어는 과거 사건을 재연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뉴스 영상의 구성은 시청자들이 세상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성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최민재(2005)는 우리나라 TV뉴스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TV뉴스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뉴스영상을 구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형식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카메라기자들은 뉴스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기존의 제작관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짧은 개별아이템 보도시간, 타사의 제작방식, 시청률에 따른 데스크의 압력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 뉴스영상 구성은 뉴스형태의 형식적 한계에 영향을 받지만 주목도를 중시하는 기존의 제작행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영상 화면을 제작하는 담당자들은 시청률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이 영상화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영상 구성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작현장에 있는 인력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TV뉴스 영상은 언어적 텍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내용에 따라 구성되는 화면도 상당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미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TV뉴스 영상의 특징은 시청자들의 주목도와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작 관행에 의해 정형화되고 있다.

4. TV뉴스 양식의 주요요소들

뉴스 양식이란 뉴스를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릇의 모양과 디자인에 따라 그 속에 담기는 내용물이 달라지듯이 뉴스의 양식에 따라 뉴스의 성격이 결정되기도 한다. TV뉴스는 TV라는 매체 특성이 가미됨으로써 신문보도 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⁵⁾. 정보제공과 의제설정이라는 점에서는 신문 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뉴스의 구조나 제시방식, 기자들 자신의 뉴스 구성틀, 수용자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수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TV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 많은 학자들(김우룡, 2002; 남궁협·안주아, 2007)은 TV뉴스의 특징으로 시청각적 매체로 이해하기 쉽다, 시간적 구성을 한다, 구어체를 사용한다, 감성적 매체이다, 속도성 및 현장성이 있다, 선택적으로 기사를 볼 수 없다, 기사길이가 짧다, 반복적 시청이 불가능하다, 최대공약수의 대상 수용자를 설정해 내용이 평이하다, 그림 짜맞추기처럼 제작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TV라는 매체 속성에 기인하는 TV 뉴스 양식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TV뉴스의 양식을 살펴보고 지역방송 뉴스가 이러한 전형적인 양식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적 요소

TV뉴스 양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중의 하나는 시간적 요소이다. TV뉴스는 한정된 방송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뉴스를 할당해야 하며, 신문이나 잡지처럼 횡적인 공간의 배열이 아니라 종적인 시간의 축을 따라 진행하고 멈추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장에서 구체적인 경쟁적 한정자원을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남궁협·안주아, 2007). TV뉴스의 시간적 요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전체 뉴스 시간이다. 몇 분짜리 뉴스인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편집의 골격과 소화할 수 있는 기사의 양이 달라지므로 전체 뉴스 시간은 무엇을 취재해야 하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이 된다.

홍기선(2007)에 의하면 한국 지상파TV 메인뉴스의 경우 전체 뉴스 시간은 평균 45분정도이다. 미국 네트워크 TV뉴스의 경우 광고를 포함해서 30분, 뉴스만을 측정했을 때 19분정도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뉴스 전체 보도시간이 20여분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중앙 지상파 TV뉴스 길이는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홍기선, 2007). 한국 TV뉴스 시간은 지금까지 권위적인 정부의 홍보의지, 공영방송 사장단의 정치적 편향성, 신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서고자 하는 내용강화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긴 뉴스시간을 채워야 할 경우 뉴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이재영, 2002).

지역방송의 TV뉴스의 경우는, 서울의 메인뉴스가 구조적 시간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TV뉴스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배열된 뉴스의 가지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역방송사가 전체 구조적 시간조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뉴스 아이템을 배열하고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적 선택권은 서울의 중앙 방송사에 있는 것이며 시청자들도 그러한 시간적 구조속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지역방송사가 나름대로 메인뉴스에서 지역뉴스로 할당

받은 10-15분 정도의 시간 블럭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간적 요소는 뉴스 1건의 길이이다. 뉴스 1건의 길이는 전체 뉴스시간의 틀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요소이자 뉴스를 제작하는 회사나 사회의 전략적 또는 문화적 선택사항일 수 있다. 뉴스1건의 길이를 1분 이내, 2분이상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뉴스를 어떻게 제작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뉴스 1건의 길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TV뉴스의 관행은 아나운서나 앵커가 혼자 진행하는 뉴스의 경우 약 40초 정도로 제한되고 있고, 1분 이상의 기사는 대체로 현장 취재기자가 등장하고 기자이외의 인물이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전체뉴스의 길이가 편성전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뉴스 1건의 길이 문제는 보도국의 기술적인 판단영역이자 실천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에서 뉴스 1건의 길이는 뉴스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시간적 요소이다. 지역방송이 10-15분이라는 구조적 시간 조건 속에서 뉴스 1건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보도의 심층성'이나 '뉴스의 전달방식의 다양성' 측면, '전달되는 뉴스의 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하루에 제공되는 뉴스 아이템의 수가 많으면 뉴스 1건에 할애하는 보도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보도내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보도의 심층성은 떨어지기 쉽다. 이와 더불어 많은 뉴스들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취재기자의 리포트보다는 앵커의 뉴스 단독 제시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TV뉴스의 경우에는 10-15분의 뉴스시간에 평균 50여초정도의 뉴스를 평균 11-15개 가량 보도하고 있다. 그중 지역 민방이 대체적으로 가장 길었으며 하루에 20개 이상의 뉴스를 보도하는 지역도 있다(남궁협·안주아, 2007). 이런 뉴스에는 수박겉핥기식 뉴스보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단순보도 뉴스가 전체뉴스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손승혜(1999)는 한국의 MBC, KBS, SBS와 영국의 BBC, 미국의 NBC사의 저녁메인 TV뉴스를 대상으로 뉴스 1건의 길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NBC의 경우 뉴스전체시간은 가장 짧았으나 뉴스 1건의 길이가 1분 59.2초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분 54.34초로 영국BBC 였으며, SBS 1분

28초, MBC 1분 20.87초, KBS 1분 17.41초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선(2007)도 한국 TV뉴스와 다른 나라 TV뉴스의 저녁뉴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TV뉴스는 잘게 잘게 쪼갠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하는 구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뉴스아이템을 짧게 보도하는 시간적 구성은 다수의 시청자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잡아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이 틀에 박힌 뉴스양식에 대해 식상함과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짧은 길이의 뉴스로 구성된다면 원인, 과정, 대안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심층취재 뉴스의 비중은 낮고 과정과 결과만을 보도하는 뉴스의 비중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TV뉴스의 시간적요소인 전체뉴스길이와 뉴스 1건당 길이는 뉴스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TV뉴스의 경우 전체보도시간은 긴 편에 속하지만 비교적 짧은 길이의 뉴스아이템들을 많이 배열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2) 뉴스의 전달방식

TV뉴스 양식을 구성하는 두 번째 중요요소는 뉴스의 전달방식이다. 뉴스의 전달방식은 크게 '앵커가 혼자 전달하는 시스템'과 '앵커와 기자가 함께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앵커가 혼자 전달하는 시스템'은 기자들의 현장리포트나 육성리포트 없이 앵커나 아나운서가 혼자 뉴스 내용을 읽어가는 방식이다. 기자 리포트 뉴스와 구별하여 '단신'이라고 부르며, 기사의 길이가 짧아 뉴스가치가 크지 않은 뉴스를 처리할 때 주로 활용된다. '앵커와 기자가 함께 전달하는 시스템'은 앵커가 리드하고 기자가 리포트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다시 현장 생중계 형식, 현장 녹화 방식, 스튜디오 출연 방식, 육성 리포트 방식이 있으나 뉴스시간에 압박한 시점에 발생해 녹화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흔히 완제품이라고 불리는 현장 녹화 방식으로 뉴스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뉴스의 전달방식이 앵커가 혼자 전달하는 시스템이나 앵커와 기자가 함께 제시하는 시스템이나에 따라서 뉴스제작자 입장에서는 뉴스의 완성을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입 정도가 다르며 수용자 입장에서는 뉴스에서 느끼는 인식과 몰입정도가

다르다. 즉, 기자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화면에 등장하는 뉴스, 기자가 생방송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달되는 뉴스는 스튜디오 밖의 현장에 기자와 카메라 요원, 중계차등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며 높은 제작비용이 든다(배현석, 2002). 반대로 앵커 혼자 진행하는 시스템은 기자와 카메라요원을 현장에 꼭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력과 시간이 덜 들며 비용 또한 적게 든다. 그러므로 뉴스전달방식은 기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제작비용을 투입하고 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자가 사건이 발생한 현장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수용자들이 사건에 대한 사실감과 현장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그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해주는 효과를 준다(배현석, 2002).

그 외 뉴스의 인물이나 정보원이 직접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기관이나 정당의 중대한 발표 사항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 특보나 뉴스 속보를 방송할 때를 제외하고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 중계 장비를 뉴스현장에 배치해 생방송으로 처리하여 뉴스의 당사자가 직접 전하기 때문에 기자리포트보다 시청자들이 느끼는 신뢰감이 더 클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보를 유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뉴스의 인물이나 취재원이 직접 전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SBS가 1998년 하반기 이후 정규 프로그램에서 녹화 형태로 이런 방식을 한때 활용해 본적이 있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중단했다. 생동감을 높이고 다채로운 인상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작업량 증가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제작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방식은 중앙3사 TV뉴스의 아침뉴스나 마감뉴스 시간에 1-2건 정도 사용되고 있으나 저녁뉴스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이재영, 2002).

지역뉴스의 경우 중앙방송사에 비해 기자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 및 자원이 열악하여 뉴스전달방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앵커가 혼자 전달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배현석(2002)은 대구지역TV뉴스를 분석한 결과 대구 지역 TV뉴스는 전체기사의 70%이상이 앵커+보도화면 방식에 의존하는 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확실성은 지역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 인력 및 재정을 적게 투입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남궁협·안주아(2007)는 광주

지역 TV뉴스는 남자 앵커와 여자 앵커가 제시하는 뉴스를 구분하여 뉴스전달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광주 TV뉴스 보도형식은 전체 뉴스의 50%이상이 남자앵커+보도화면으로 전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남자 앵커+기자+자료화면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준웅·황유리(2004)는 한·미·일·영 TV저녁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뉴스전달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앙 지상파 방송 3사는 앵커+기자 리포트+녹화화면 방식으로 제시된 뉴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앵커+보도화면 방식으로 제시된 뉴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이나 전화를 통해 현장을 연결하여 보도하는 뉴스의 비율은 4개의 분석대상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국·일본·미국의 경우, 생방송으로 현장 연결하는 뉴스와 스튜디오 출연하여 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뉴스전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방송사인 WPVI TV뉴스는 전체 뉴스의 26.6%가 현장 연결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 뉴스의 경우 자료화면이 충분하지 않거나 뉴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앵커만의 보도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반면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시간적으로도 확장하고 내용적으로도 심층적인 보도를 하는 등 뉴스 구성상의 리듬감을 준다. 하지만 한국 TV뉴스는 획일적으로 80초 내외의 앵커소개와 기자 리포팅으로 구성되는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3) 뉴스의 배치

TV뉴스에서 뉴스의 배치란 많은 뉴스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기사를 시간의 축에 따라 시작부분 또는 중간부분 등 어느 위치에 배치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도 1면의 기사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듯이 TV뉴스 또한 톱뉴스의 결정에 따라 다른 뉴스들의 상대적 배치 지점도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날의 톱뉴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TV뉴스는 공간적 배치를 하는 신문과는 달리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스를 배열하기 마련이다. 신문뉴스의 중요도는 신문지면에서의 공간적 위치와 크기에 따른 공간적 서열에 따라 결정되는데 반해 TV뉴스의 중요도는 전체 뉴스 속에서 어떠한 서열

에 위치하여 방송 되는가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이창현·손승혜, 1999). 수용자들 역시 뉴스의 시작과 함께 전달하는 첫 번째 뉴스가 그날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제시되는 아이템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지역방송 뉴스에서 맨 먼저 방송하는 뉴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지역방송 뉴스가치 판단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TV뉴스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보도되는 ‘오늘의 중요뉴스’ 코너에 선정되는 뉴스는 무엇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한국언론재단, 1999).

중요뉴스코너는 한국은 물론 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뉴스의 미리보기 코너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날 핵심적인 사건이었나를 규정하는 의제 설정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뉴스의 시간적 순서가 구성되기도 하지만 뉴스의 흐름과 시청자의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해 중간에 중요한 뉴스를 배치하기도 한다. 뉴스가 시작된 지 20분 전후에는 시청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뉴스 편집자들은 이 시점에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기까지 한 뉴스를 배치한다. 이러한 편집방침은 전체적으로 TV뉴스의 저질화를 부추기는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영(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TV 메인뉴스는 대체로 40~45분 정도의 전체뉴스 시간을 3~4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분해 기사를 배치하는 정형화된 관행을 보인다. 단락의 수는 방송사에 따라, 또는 기사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블록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남녀앵커의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시청자가 뉴스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배려에서이다. 첫 번째 블록은 대개 그날에 발생한 주요 사안을 하드뉴스, 스트레이트 기사 위주로 배치한다. 여기에는 그 날의 중요한 기사인 톱뉴스가 당연히 포함되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 계속 진행되는 정치, 경제, 사회부분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기사 등이 배치된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하는 두 번째 블록은 사회분야 사건사고 중 새로운 것과 경제, 사회분야의 집중취재 뉴스를 배치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 블록으

6) 이는 또 시청률 통계에서도 집단적 형태의 유형으로 드러나는 사실이기도 하다. (손승혜, 이창현, 1999)

로부터의 방향전환과 시청률의 흐름에 민감한 뉴스를 고려한다.

세 번째 블록은 대개 뉴스 시작 30분 후쯤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청자의 이탈을 고려해 생활에 밀착한 뉴스들을 배치한다. 문화뉴스와 지방뉴스등도 이곳에서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블록은 수도권 소식과 국제 뉴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미담성 뉴스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흥미 있는 뉴스등도 이곳에 심는 때가 많다.

그 외, TV뉴스 배치에는 이밖에도 묶음 편집기법이 활용되는데 이것은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려는 의도에서 관계가 있는 뉴스들은 가급적 인접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다. 묶음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사의 주체가 같거나 또는 다루는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때 등을 포함한다. 이렇듯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체 뉴스의 배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주목도를 유지하려는 방송사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뉴스의 배치는 뉴스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으며 뉴스제작자들이 전략적, 관습적으로 구성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방송 TV뉴스의 배치를 살펴본다면 지역방송 뉴스가치 판단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전반적인 보도관행에 관한 연구이므로 뉴스의 주제, 형식, 정보원 그리고 영상(보도화면)의 구성요소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역방송 TV뉴스 선행연구에서는 뉴스의 다양성에 있어서 주제, 형식, 정보채널의 분석 등에 집중되어 뉴스의 성격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원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또한, TV뉴스는 신문과는 달리 영상(시각)과 말(청각)이 결합된 형태로 전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방송 TV뉴스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뉴스의 다양성을 정보원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으로 확대하였고 뉴스영상을 분석유목에 포함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제주지역 TV뉴스의 보도내용은 방송사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 1-1. 뉴스 주제의 다양성과 중요도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1-2. 뉴스 정보원의 다양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1-3. 갈등뉴스의 경우, 보도관점의 다양성이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1>은 제주지역 TV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문제 1-1은 각 방송사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사회모습을 담아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전체뉴스의 중심주제 유형과 중요한 뉴스의 중

심주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2에서는 각 방송사들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원의 수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갈등기사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들이 제시되기 때문 단순히 정보원 유형의 수를 세는 것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구문제 1-3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갈등사안을 다루는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제시된 관점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2> 제주지역 TV뉴스의 보도형식은 방송사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 2-1. 뉴스의 길이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2-2. 뉴스 유형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2-3. 뉴스 전달방식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2>는 뉴스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형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중 뉴스 길이와 뉴스의 유형, 뉴스의 전달방식의 특징을 방송사별로 살펴보고, 제주지역 TV뉴스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3>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구성은 방송사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 3-1. 영상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3-2. 뉴스의 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3>은 뉴스영상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문제 3-1은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은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2는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은 청각적 텍스트인 뉴스 내용과 어떤 연관성(일치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지상파 3개 방송사의 TV뉴스 보도관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구어적이고 비계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량적 자료로 전환시켜 메시지의 특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메시지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입증 가능한 기술을 하고, 기술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이야기의 문맥에 관하여 추론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TV뉴스에 나타나는 내용을 양적자료로 만드는 것은 연구대상 내용의 의미와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내용을 양화시킨다는 것은 미디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으며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제작하여 지역 수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TV뉴스 중 저녁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KBS제주, 제주MBC, JIBS를 포함한 세 개의 지상파방송사가 있으며, 이 세 개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일 아침, 오전, 오후, 저녁시간대에 TV뉴스를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자사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급하고 있다.

이중 저녁뉴스는 하루 발생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는 종합뉴스 양식을 띠고 있으며 주요 저녁뉴스 캐스트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지역방송의 TV저녁뉴스 프로그램은 3개 중앙 지상파 방송사가 8시 또는 9시부터 내보내는 저녁 메인뉴스 뒤의 지역뉴스를 말한다. 즉, 9시에 방송되는 KBS1의 KBS 뉴스9 뒤의 'KBS제주 뉴스9', MBC 뉴스데스크 뒤의 '제주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저녁8시에 방송되는 SBS 8뉴스 다음의 'JIBS 저녁종합뉴스'이다. 제주지역 TV저녁뉴스 보도시간은 각 방송사의 자체편성비율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10~20분 정도이다. 보도방식에 있어서는 제주 3개 지상파 방

송사가 공통적으로 평일에는 남자와 여자 총 2명이 진행하고, 주말에는 남자 또는 여자 진행자 1명이 진행하고 있다.

<표 3-1> 분석대상 프로그램⁷⁾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프로그램명	KBS제주 뉴스9	제주MBC 뉴스테스크	JIBS 종합뉴스
시간(평일)	21:40-21:50(10분간)	21:40-21:50(10분간)	20:25-20:45(20분간)
(주말)	21:20-21:30(10분간)	21:20-21:30(10분간)	20:20-20:35(15분간)

*방송사 순서는 기존연구 순서에 따른 것임.

*자료출처: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편성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청각적인 텍스트인 뉴스 내용과 시각적 이미지인 뉴스 영상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뉴스VOD의 시청과 뉴스 기사 검색란의 뉴스 내용의 출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3) 분석일자의 선정

분석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이다. 분석 기간을 7개월로 설정한 것은 지역방송의 TV뉴스보도 관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뉴스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TV뉴스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 표집방식으로는 계층적 표집방법(Constructed Sampling)과 연속적 표집(Continuous Sampling), 이 둘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구성주 2주(Constructed two week) 추출방법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7) 제주지역에 TV뉴스를 제공하는 채널로, 지상파3사와 KCTV채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 3사는 지상파3사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KCTV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KCTV TV뉴스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분석기간에 포함되는 전체표본들을 월에 관계없이 각 요일별로 묶어서 매 요일마다 2개씩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낸 후 추출된 표본들로 가상의 2주일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화계발 연구자들이 TV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집방법으로 표집의 타당성이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표집방법이다.

스탬펠(Stempel,1952)의 연구에 의하면 한 신문에 1년 동안 게재된 단일 주제에 대한 기사내용을 분석할 경우, 그 표본의 크기를 각각 6일, 12일, 18일, 24일, 48일 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일년 분 모두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12일 분 이상의 표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차배근, 1995).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각 달마다 매월 2일씩 14일치를 표집해 구성주(constructed week)⁹⁾ 2주를 조합했다. 요일 구성은 요일적 특성을 없애기 위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달의 표본을 선정하는 데는 클락(Jeff Clark, 1960)의 회전식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클락(Jeff Clark)의 회전식 표집방법은 첫 번째 사례는 제1주 월요일, 두 번째 사례는 제2주 화요일, 세 번째 사례는 제3주 수요일 등의 순서를 뽑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제한된 시간과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기간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계절적, 시기적 편향성과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른 역사적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달 제1주 월요일, 두 번째 달 제2주 화요일, 세 번째 달 제3주 수요일 등의 순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분석일자는 <표3-2>와 같다.

<표 3-2> 분석일자 선정결과

날 짜	구성 방법	날 짜	구성 방법	날 짜	구성 방법
2007년 10월15일(월)	셋째주 월요일	2007년11월 27일(화)	넷째주 화요일	2007년 12월 5일(수)	첫째주 월요일
2008년 1월 10일(목)	둘째주 목요일	2008년 2월 15일(금)	셋째주 금요일	2008년 3월 22일(토)	넷째주 토요일
2008년 4월 6일(일)	첫째주 일요일				
2007년 10월29일(월)	둘째주 월요일 대체	2007년11월 20일(화)	셋째주 화요일	2007년 12월26일(수)	넷째주 수요일
2008년 1월 3일(목)	첫째주 목요일	2008년 2월 8일(금)	둘째주 금요일	2008년 3월 15일(토)	셋째주 토요일
2008년 4월 27일(일)	넷째주 일요일				

9) 구성주는 7개 요일을 대표하는 연속적인 날짜로 구성된 일반적인 주가 아니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기간을 대표하는 7개의 요일로 구성된 인위적인 주일을 말함.(배현석, 2002)

클락의 표집방법에 의하면 분석일자 선정대상 첫 달인 2007년 10월의 경우 첫째주 월요일이 분석일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JIBS의 경우 저녁종합뉴스 VOD가 2007년 10월 10일 이후 방송분에 한해 제공되고 있어 2007년 10월10일 이후의 첫 번째 월요일인 2007년 10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구성을 시작하였다.

또한, 10월의 둘째주 월요일인 10월 8일(월)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JIBS의 경우 2007년 10월 10일 이전 방송분에 대한 VOD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10월22일(월)을 분석일자로 선정하였다.

4)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뉴스아이템으로 하였다. 앵커의 도입 이후 기자에 의해 소개되는 리포터 뉴스는 물론이고 앵커 단독으로 소개되는 단신보도뉴스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관광객동향, 감귤가격 동향(이하 제주MBC), 일기예보(이하 JIBS) 코너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대부분의 TV뉴스 선행연구들에서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코너의 뉴스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주지역 TV뉴스의 특징을 선행연구와 서로 비교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분석유목

(1)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유목

① 연구문제 1-1에 대한 분석유목

□ 주제 유형

뉴스의 주제유형에 대한 분석유목은 대주제 분석유목과 소주제 분석유목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유목들은 제주지역 TV뉴스와 다른 지역 TV뉴스와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타 지역방송 TV뉴스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소주제 분석유목은 4개 지역 TV뉴스를 비교·연구한 박소라·마동훈(2000)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박소라·마동훈(2000)의 분석유목은, 정치, 외교, 통일/북한, 군사/국방, 행정/자치제, 법률, 경제/산업, 생활정보, 농업/농민, 기술/과학, 정보통신, 환경/공해, 교육, 문화/예술/학술,

스포츠, 범죄/경찰, 사고/재난, 인간적 흥미/미담, 교통, 관광이다. 이중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목들을 하나로 묶고¹⁰⁾, 인사동정뉴스를 새로 추가하였다.

대주제 분석유목은 광주지역 TV뉴스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분석유목(남궁협·안주아, 2004)¹¹⁾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18개의 소주제 분석유목을 묶어 7개의 분석유목으로 재설정하였다.

<소주제 분석유목>

- 정치/선거 : 대통령, 정당활동, 정치인, 국회, 도의회활동, 선거
- 행정/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 행정활동
- 통일/북한 : 북한관련, 통일관련 기사
- 국제 : 외교, 전쟁
- 군사/국방 : 군 훈련, 군대활동
- 경제/산업 : 기업관련, 투자유치, 농수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활동 등
- 생활정보 : 요금인상, 취업정보, 여행 및 교통정보, 소비자 피해 등
- 농수축산업 : 농·어촌 관련 기사, 농수축산물 가격, 농수축협 등
- 기술/과학 : 정보통신, 기술교류, 과학박람회, 첨단과학기술
- 환경/공해 : 해양오염, 꽃자왈 및 산림 훼손, 야생동물 보호 등
- 교육 : 사·공교육, 교원 및 입시정보 등
- 문화/예술/학술 : 문화 및 학술행사, 공연, 축제, 문화단체행사 등
- 스포츠 : 스포츠 경기, 전지훈련 소식
- 복지/보건/의료 :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대책, 복지시설, 의료지식, 의료보험
- 범죄/사고 : 재난, 사건사고, 해양사고, 재판, 자연재해, 불법행위 적발
- 인간적 흥미 : 소년소녀 이야기, 미담, 인간승리 등
- 인사동정 : 인사 소식, 인물 동정, 회사동정
- 기타

<대주제 분석유목>

10) ①“기술/과학” + “정보통신”= “기술/과학” ②“범죄/경찰” + “사고/재난” = “사건/사고” ③ “생활정보”, + “교통”+ “관광”= “생활정보”

11) ①정치/행정, ②경제, ③사회, ④문화/스포츠, ⑤생활/날씨, ⑥기타

- 정치/행정 : 정치/선거, 행정/자치제, 통일/북한, 국제, 군사/국방
- 경제 : 경제/산업, 농수축산업, 기술과학
- 사회 : 환경/공해, 복지/보건/의료, 교육
- 문화/스포츠 : 문화/예술/학술, 스포츠
- 생활흥미 : 생활정보, 인간적 흥미, 인사동정
- 범죄/사고
- 기타

□ 주제 유형에 따른 중요도

뉴스의 중요도는 '전체뉴스 속에서의 보도서열' 과 앵커의 오프닝 멘트 이전에 제시되는 '헤드라인 뉴스 포함 여부'로 측정하였다. 즉, 전체 뉴스 속에서 우선적으로 보도되어 보도서열이 높을수록 중요한 뉴스가 되며, 헤드라인에 포함된 뉴스가 헤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뉴스보다 중요한 뉴스가 된다. 우선 뉴스의 보도서열은 전체뉴스에서 몇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는(1순위) 뉴스는 1, 두 번째 제시되는(2순위) 뉴스는 2, 세 번째(3순위)로 제시되는 뉴스는 3으로 점수화한 후 각 주제별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평균값이 낮은 주제가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뉴스이며 평균값이 높은 주제가 후반부에 제시되고 있는 뉴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헤드라인 뉴스에 대한 측정은, 헤드라인 뉴스에 포함된 뉴스는 1, 헤드라인 뉴스에 포함되지 않은 뉴스는 0으로 코딩한 후 각 주제별 뉴스보도건수와 비율을 측정하였다.

② 연구문제 1-2에 대한 분석유목

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뉴스에 사용된 정보원의 수, 정보원의 유형과 갈등뉴스에 제시된 관점의 양태, 갈등뉴스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 정보원의 정의

정보원의 유형은 크게 인물정보원, 단체정보원, 자료정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은주,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코딩하지 않고

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 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하나의 기호에 코딩하였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단체 정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000 실장'(개인 정보원),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자료 정보원)은 모두 '지방정부' 1개의 정보원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은 ~ 라고 밝혔다'라고 제시된 후 '한나라당 관계자'와 인터뷰 한 경우에도 한 개의 정보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체와 소속된 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2개의 정보원으로 간주하였다. 뉴스 내에서 직접적으로 정보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나 정보원이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정보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코딩을 실시해, 막연한 추측만으로 정보원을 분류하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했다(심훈, 2005). 정보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없음 또는 불확실'로 분류하였다. '000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처럼 수동태 문장으로 처리하여 주어(주체)가 없는 경우는 정보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정보원의 수

TV뉴스는 도입부의 앵커 멘트와 뉴스의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앵커 멘트는 뉴스의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도입부 앵커 멘트부터 정보원의 수를 측정하면 정보원의 중복이 불가피하므로 앵커 멘트를 제외한 뉴스 본문에 제시된 정보원의 수만을 측정하였다.

□ 정보원의 유형

정보원의 유형은 대분류 분석유목과 소분류 분석유목을 모두 사용하였다.

소분류 분석유목은 제주지역 방송뉴스의 다양성을 분석한 최낙진(2006)의 1차 정보원 유형 유목¹²⁾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대분류 분석유목은 정보원의 소분류 분석유목을 7가지 유형으로 묶어 설정하였다.

<정보원의 소분류 분석유목>

- 중앙정부 : 대통령/행정부처, 행정부 산하기관, 이에 소속된 공무원
- 국회 및 정당 : 정당, 국회, 이에 소속된 정치인

12)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정당, 지방의회, 기초단체장, 시민자생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 지방정부 : 도지사, 특별자치도 기획단, 도청 소속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등
- 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와 도의원
- 시민사회 : 환경연합, 4.3유족회, 제주문화예술 단체등
- 이익단체 :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등
- 전문가 : 제주발전연구소, 각종 연구소, 교수 등
- 교육기관 : 제주대학교, 도교육청 등
- 제주법원/검찰
- 경찰 : 해양 경찰서, 각 지역 경찰서
- 기업 : 제주지방개발공사, 한진그룹, 농수축협 등
- 일반시민 : 노동자, 영세상인, 관광객, 농어민, 학부모등
- 외국 및 타지역
- 기타(타언론사 인용 및 유출, 종교, 인터넷)

<정보원의 대분류 분석유목>

- 정부기관 : 중앙정부, 국회 및 정당, 지방정부, 제주도의회, 교육기관, 경찰, 제주법원/검찰
- 전문가
- 기업
- 시민단체 :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 일반시민
- 외국 및 기자
- 기타

③ 연구문제 1-3에 대한 분석유목

갈등뉴스의 수와 관점제시양태

갈등의 양상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만 갈등뉴스로 코딩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갈등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뉴스에 제시된 관점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관점의 제시양태는 박재영·이완수(2007)의 분석유목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

- 완전단일관점 제시 : 다른 견해에 대한 일시적인 언급조차 없이 하나의 관점만을 제시한 경우
- 대체로 단일관점 제시: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되지만 한 경우
- 복합적 관점 제시: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2/3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구문제2 에 대한 분석유목

① 연구문제 2-1에 대한 분석유목

□ 뉴스의 길이

뉴스의 길이는 특정 뉴스아이템에 대한 앵커의 시작 멘트에서 부터 다음 뉴스아이템의 앵커 시작 멘트 바로 이전까지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를 다시 30초 간격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② 연구문제 2-2에 대한 분석유목

□ 뉴스의 유형

뉴스의 유형은 최낙진(2006)과 박재영·이완수(2007)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공개된 정보 뉴스 : 스트레이트 형식
- 단순재가공 뉴스 : 스트레이트+단순 해석
- 일회성 기획 뉴스 : 원인, 과정, 대안 또는 반응이 제시되었으나 1회 보도에 그친 뉴스
- 연속 기획 뉴스 : 원인, 과정, 대안 또는 반응이 제시되었으며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뉴스
- 논평
- 인터뷰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 형식을 취하는 뉴스

- 영상 뉴스 : 청각적인 텍스트 없이 영상만 보여주는 뉴스

□ 뉴스전달방식

뉴스전달방식의 분석유목은 이종수(1999)의 뉴스아이템 구조형식 유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앵커 읽기 방식 : 앵커가 보도화면이나 리포터 출현 없이 텍스트 읽기만 하는 보도방식
- 앵커읽기+보도화면 : 앵커가 텍스트를 읽는 동안 보도화면이 함께 나가는 보도방식
- 앵커+리포터 목소리 : 앵커와 기자가 함께 진행하지만 기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등장하는 보도방식
- 앵커+리포터 현장 녹화 : 기자가 현장에서 스탠드 업 녹화화면으로 전달하는 방식
- 앵커+리포터 현장 생방송 연결 : 앵커가 현장에 있는 기자와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보도방식
- 앵커+리포터 스튜디오 출연 : 취재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현하는 보도방식

(3) <연구문제3>에 대한 분석유목

① 연구문제 3-1에 대한 분석유목

□ 뉴스영상의 구성요소

제주지역 TV뉴스는 어떠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종수(1999)의 분석유목¹³⁾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의 구성요소를 5개의 분석유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뉴스 영상에 사용된 컷을 5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후 가장 많은 컷 수를 차지하는 구성요소에 코딩하였다.

- 현장생중계화면 : 동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화면

13) 이종수(1999)는 사운드바이트, 기자스탠드 업, 사건화면, 구성된 화면, 로케이션 샷, 자료화면으로 유목화하였다.

- 사건화면 : 실제 진행되었거나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화면 또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현장녹화화면
- 구성된 화면 : 실제 사건의 녹화장면이 없거나 뉴스의 내용상 사건샷이 불가능할 경우, 사진, 문서, 그래픽, 글자 등을 사용하여 증거물로 예시되는 구성된 화면
- 상징 샷 : 특정한 기관, 사람, 사건, 사물을 상징하기 위해 장소, 건물, 사람 등을 커버 샷으로 표현하는 것(예: 주요관공서 건물외관, 부서, 사람의 명패, 깃발)
- 자료화면 : 청각적 뉴스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유사한 경험 또는 간접적 관련을 가진 과거의 화면.

② 연구문제 3-2에 대한 분석유목

□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

뉴스내용과 영상의 일치도 및 연관성을 분석하는 유목은 이종수(1999)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이종수(1999)는 뉴스내용과 영상과의 일치도 및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목을 직접적 연관, 축어적 연관, 간접적 연관, 무관(4가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앞서 영상을 1차 분석해 본 결과 축어적 연관과 간접적 연관을 분류하여 코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3개의 분석유목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직접적 연관 : 시각적요소와 청각적요소가 개념적,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간접적 연관 : 간접적으로 혹은 느슨하게 연관된 행위자, 장소, 물체 등을 보여주는 경우
- 무관 : 청각적 내용과 시각적 내용이 전혀 연관성이 없음

사건발생장소, 시간, 주행위자, 대상 등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뉴스내용과 영상이 관련이 있거나 일치한 경우, 화면이 2/3가 일치하는 경우, 영상이 청각적인 뉴스내용에서 보여 줄 수 없는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일치성이 1개일 경우에는 ‘간접적 관련’, 0일 경우 ‘무관’으로 코딩하였다. 즉, 비상품 감귤 적발과 관련하여 비상품 감귤적발 현장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영상구성방식은 ‘사건화면’이 되고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은 ‘직접적 관련’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된 감귤만을 상징 샷으로 보여줄 때에는 간접적 연관, 적발된 감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이 단순히 감귤만 보여준다면 시간과 공간과 주행위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무관’이 된다. “어제 저녁 차량이 파손됐다.” 라고 했을 때 사건 발생 시간과 과정은 제공되지 않으나 실제로 파손되어 버린 차량을 보여줌으로써 대상과 장소가 일치하고 뉴스내용외의 추가적인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적 연관’이 된다.

6)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동일한 내용을 한사람이 반복해서 코딩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코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일관성을 말한다(배현석, 2001). 내용 분석을 위하여 코딩을 할 때에는 코더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도 검정을 통해 내용분석이 객관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두 가지 방법으로 신뢰도를 검증했다.

하나는 본 연구자가 직접 코딩한 전체 뉴스 573건에 대하여 20일이 지난 후 전체기사의 10%가 넘는 60건의 뉴스를 무작위로 추출해 다시 항목별 재 코딩을 실시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본인이 반복해서 코딩한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분석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86%에서 94%까지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조사방법론을 수강하고 신문코딩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1명이 전체 573건 뉴스 가운데 10%가 넘는 6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다시 항목별 코딩을 실시하여 본인의 분석결과와 일치여부를 측정하였다. 특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의 내용과 분석유목, 측정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영상화면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과정에서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의견을 나눈 후 분류방법을 결정했다.

두 사람간의 분석결과 신뢰도는 <표3-3>과 같다 이 또한 분석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85%에서 96%까지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산출은 홀스티(Holsti)의 신뢰도 검증공식¹⁴⁾을 응용하였다.

14) 코더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는 공식은 $CR=2M/(N1+N2)$ 이다. 여기서 M은 2명의 분석자간의 일치한 코

신뢰도를 측정한 변수들은 ①주제 ②정보원 유형 ③갈등뉴스 관점제시양태 ④ 영상구성방식 ⑤뉴스내용과 영상의 일치도 ⑥뉴스의 유형이다. 뉴스의 길이, 뉴스 전달방식, 뉴스의 중요도(헤드라인 뉴스 포함여부와 보도순열)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비교적 적게 개입되어 비교적 확실하게 측정되는 변수들이므로 신뢰도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코딩 데이터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빈도분석,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유목과 방송사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x²) 검증을 실시했으며, 통계검증의 유의 수준은 95% 신뢰수준으로 정하였다.

<표 3-3> 신뢰도 검증

검증유목	코더간의 신뢰도	반복 코딩 신뢰도	평균
주제의 유형	92%	90%	91%
정보원 유형	92%	91%	91%
관점제시양태	98%	94%	96%
영상구성방식	86%	89%	87%
화면과 영상의 관계	85%	86%	85%
뉴스의 유형	90%	89%	89%

딩수를 말하며, N1는 분석자1이 코딩한 수, N2는 분석자 2가 코딩한 수를 의미한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제주지역 TV뉴스 구성 현황

아래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체계적 구성방법에 의해 추출된 뉴스건수는 제주MBC 201건, KBS제주 165건, JIBS 207건으로 총 573건이다.

<표 4-1> 뉴스 보도건수

구분	뉴스 총 보도건수(%)	하루 평균 뉴스보도건수(개)
KBS제주	165건(28.8)	11.79
제주MBC	201건(35.1)	14.36
JIBS	207건(36.1)	14.86
합계	573건(100)	13.67

제주지역 3개 방송사의 뉴스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약 41개 정도의 뉴스를 보도하였으며, 이중에 KBS제주는 하루 평균 약12개, 제주MBC는 하루 평균 약14개, JIBS의 경우 하루 평균 약15개의 뉴스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25-30개 정도의 뉴스를 구성하는 중앙 지상파 3사 TV뉴스에 비하여 적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32개의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WPVI 지역 TV뉴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매우 적은 수치이다(이준웅·황유리, 2004). 그러나 부산(11.6개), 광주(12.6개), 전주(11.7개), 원주(10.5개)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아이템을 보도하고 있다(박소라·마동철, 2000).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지역민방인 JIBS가 하루 평균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JIBS 저녁뉴스 편성시간이 3개 방송사 중에서 가장 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TV뉴스 프로그램 편성시간은 중앙방송 TV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자사의 편성 방침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

이지만 JIBS의 경우 2002년에 개국한 후발주자로서 KBS제주와 제주MBC 저녁 뉴스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5-10분 정도 더 많이 뉴스 보도에 할애 하고 있다. KBS제주와 제주MBC의 경우에는 뉴스 편성시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 건수에 있어서 약 2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뉴스 1건당 길이와 뉴스 내용의 심층성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1: 뉴스 주제의 다양성과 중요도에 있어서 방송시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주제의 유형

아무리 거대한 언론사일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사건과 정보들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은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 일종의 선택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 중에서 선택된 일부만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특히, 시간적 제약을 받는 TV뉴스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TV뉴스에서는 어떤 주제가 선택되어 보도되고 있을까? 제주지역 TV뉴스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 TV뉴스 선행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 전통적 분야에 대한 편향성이 제주지역 TV뉴스 보도관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4-2>를 살펴보면, 정치/행정이 184건(32.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제 109건(19.0%), 사회 88건(15.4%)순으로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사고의 경우 72건(12.6%)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생활홍미 61건(10.6%)과 문화/스포츠 51건(8.9%)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방송사별 중심주제 (대주제)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KBS제주	제주MBC	JIBS제주방송	전체
정치/행정	45(27.3)	72(35.8)	67(32.4)	184(32.1)
경제	33(20.0)	31(15.4)	45(21.7)	109(19.0)
사회	26(15.8)	30(14.9)	32(15.5)	88(15.4)
문화/스포츠	14(8.5)	18(9.0)	19(9.2)	51(8.9)
생활흥미	17(10.3)	23(11.4)	21(10.1)	61(10.6)
범죄/사고	28(17.0)	25(12.4)	19(9.2)	72(12.6)
기타	2(1.2)	2(1.0)	4(1.9)	8(1.4)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9.741, df=12, p=0.639$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 문화/스포츠, 생활흥미의 경우 방송사간에 보도비율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치/행정, 경제, 범죄/사고는 방송사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주MBC가 72건(35.8%)으로 가장 높은 보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KBS제주(27.3%)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는 JIBS가 45건(21.7%)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MBC가 31건(15.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사고의 경우 KBS제주가 28건(17.0%)으로 타방송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JIBS가 19건(9.2%)으로 가장 적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주제에 따라 방송사간의 보도비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p>.05$).

뉴스 주제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자체가 117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산업 74건(12.9%), 범죄/사고 72건(12.6%), 정치/선거 64건(11.2%)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활정보 30건(5.2%), 환경/공해 23건(4.0%), 복지/보건 8건(3.9%)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뉴스인 관계로 국제, 통일/북한에 관한 기사는 단 1건도 없었으며 기술/과학과 군사/국방도 그 보도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방송사별 중심주제 (소주제)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BS	전체
정치/선거	16(9.7)	23(11.4)	25(12.1)	64(11.2)
행정/지자체	29(17.6)	47(23.4)	41(19.8)	117(20.4)
군사/국방	0	2(1.0)	1(0.5)	3(0.5)
경제/산업	20(12.1)	19(9.5)	35(16.9)	74(12.9)
생활정보	8(4.8)	12(6.0)	10(4.8)	30(5.2)
농수축산업	13(7.9)	11(5.5)	10(4.8)	34(5.9)
기술/과학	0	1(0.5)	0	1(0.2)
환경/공해	10(6.1)	5(2.5)	8(3.9)	23(4.0)
교육	10(6.1)	18(9.0)	16(7.7)	44(7.7)
문화/예술	9(5.5)	11(5.5)	15(7.2)	35(6.1)
스포츠	5(3.0)	7(3.5)	4(1.9)	16(2.8)
복지/보건	6(3.6)	7(3.5)	8(3.9)	8(3.9)
범죄/사고	28(17.0)	25(12.4)	19(9.2)	72(12.6)
인간적 흥미	4(2.4)	3(1.5)	3(1.4)	10(1.7)
인사동정	5(3.0)	8(4.0)	8(3.9)	21(3.7)
기타	2(1.2)	2(1.0)	4(1.9)	8(1.4)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23.538, df=30, p=0.792$				

제주지역 TV뉴스 주제 유형의 분포는, 분석 유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지자체, 경제/산업, 범죄/사고 등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은 반면, 보건/복지, 환경/공해, 생활정보, 기술/과학 등에 관한 보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전통적 주제에 대한 선호와 복지/보건, 생활정보, 환경/공해 등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뉴스에 대한 소홀함이 제주지역 TV뉴스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 TV뉴스에서는 문화/예술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주제유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 TV뉴스에서는 비교적 적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인사동정(3.7%)관련 뉴스의 경우 복지/보건(3.9%)와 환경/공해(4.0%)와 비슷한 보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사동정이 TV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이 수치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또는 이 같은 결과가 제주지역 TV뉴스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TV뉴스의 특징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복지/보건(3.9%)와 환경/공해(4.0%)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석유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사동정 뉴스 대상은 검찰, 선관위,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사회의 상층부 지향성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심 주제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제주는 범죄/사고(17.0%), 환경/공해(6.1%)가 타 방송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정치/선거, 교육, 행정은 타 방송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주MBC는 행정/지자체(23.4%), 교육(9.0%)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 환경/공해는 타 방송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JIBS의 경우 경제/산업(16.9%), 문화/예술(7.2%)가 타 방송사에 비해 높은 반면 스포츠, 농수축산업의 비율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뉴스 주제 유형에 따라 방송사별로 보도비율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뉴스주제의 유형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제 분포에 있어서 획일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협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과 방송사 기자들의 취재범위가 대동소이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방송사별 주제 다양성 지수

구분	주제의 다양성 지수
KBS제주	0.1068
제주MBC	0.1150
JIBS	0.1121

다음은 방송사별로 뉴스 주제 유형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하여 허핀달 지수(HHI)¹⁵⁾를 사용하여 각 방송사의 뉴스 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허핀달 지수는 경제학이나 매체 경제학에서 기업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의 이니셜을 따 HHI(Herfindahl- Hirshmann index)지수라고도 한다(심훈, 2005).

방송사별 다양성 지수를 살펴보면, KBS제주의 경우 다양성지수 수치가 가장 낮아 타 방송사에 비해 주제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제주 MBC의 경우 수치가 가장 높아 KBS제주와 JIBS에 비해 주제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2) 뉴스 주제별 중요도

지역방송 TV뉴스의 중요도는 뉴스 주제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주제유형이 중요한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뉴스의 중요도는 '전체 뉴스 속에서의 각 주제의 보도서열'과 '헤드라인 뉴스 포함 여부'로 측정하였다. 먼저 각 주제별로 뉴스의 보도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보도순위를 구하였고, 이들 보도서열간의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유형별 전체적인 보도순서를 살펴보면, 인간적 흥미(5.20), 정치/선거(5.31)가 주목도가 가장 높은 1순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환경/공해(6.00), 경제/산업(6.07), 농축수산업(6.56)등이 2순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복지/보건(9.71), 교육(10.07), 인사동정(11.52)등은 전체 뉴스 중에 14-16번째 위치를 차지해 대개 주목도가 낮은 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주제유형에 따른 보도 서열 차이는 F검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15) 경제분야에서 사용하는 지수로,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집중도가 높아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치가 낮다는 것은 집중도가 낮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유목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각각 제곱한 후 이를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방송연구에서 주로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별 다양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나 방송사간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16) 조사결과 외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JIBS와 KBS제주는<네트워크 >라는 코너를 통해 다른 지역의 소식을 일정 부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MBC는 모든 기사를 자사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한 뉴스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KBS제주의 경우 서귀포시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서귀포시 소식만을 따로 묶어 소개하는 형식을 고정 코너화 하여 보다 넓은 지역의 뉴스를 보도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적 흥미는 보도건수가 적었지만, 주말과 휴일에 1순위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제별 보도순위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정치뉴스가 1순위로 제시되고 있다. 본 조사기간이 총선과 대선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선거 뉴스가 많았는데 정치/선거는 3개 방송사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구성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정치뉴스를 중요시 여겨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중앙 지상파 방송 3사의 TV뉴스 보도 관행을 지역방송도 답습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방송사별 뉴스주제 보도서열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평균 보도서열	표준편차	평균 보도서열	표준편차	평균 보도서열	표준편차	평균 보도서열	표준편차
정치/선거	4.63	3.704	5.30	4.353	5.76	4.576	5.31	4.250
행정/지자체	7.79	4.048	9.04	4.611	8.22	4.077	8.44	4.288
군사/국방	0	0	6.50	4.950	11.00	0	8.00	4.359
경제/산업	4.30	2.473	7.05	4.636	6.54	3.484	6.07	3.710
생활정보	7.38	4.173	8.42	6.501	5.10	3.315	7.03	5.075
농수축산업	6.85	5.242	7.55	5.716	5.10	4.433	6.56	5.124
기술/과학	0	0	9.00	0	0	0	9.00	0
환경/공해	6.10	4.012	5.40	3.362	6.25	3.845	6.00	3.668
교육	9.10	5.744	8.61	4.002	12.31	2.330	10.07	4.256
문화/예술	7.67	4.664	6.82	3.656	10.60	5.040	8.66	4.746
스포츠	5.80	3.421	7.43	2.992	10.00	3.367	7.56	3.405
복지/보건	6.83	2.639	12.43	4.276	9.50	6.118	9.71	5.041
범죄/사고	8.04	3.746	10.00	5.508	9.05	4.183	8.99	4.555
인간적 흥미	5.00	4.243	6.00	7.810	4.67	4.726	5.20	4.984
인사동정	10.60	2.702	10.63	2.615	13.00	3.703	11.52	3.172
기타	5.00	1.414	6.50	.707	8.75	4.787	7.25	3.615
전체	6.87	4.153	8.20	4.855	8.07	4.574	7.77	4.589
전 체 : F=5.708, df=15, P= 0.000 KBS제주 : F=2.112, df=13, P= 0.016 제주MBC : F=1.812, df=15, P= 0.036 J I B S : F=4.656, df=14, P= 0.000								

그리고 각 방송사 별로 뉴스 주제유형에 따라 보도서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뉴스 주제유형에 따라 보도서열이 다르게 나타났고, 보도서열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제주의 경우 경제/산업(4.30), 정치/선거(4.63), 인간적 흥미(5.00), 스포츠(5.80)등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BC는 정치/선거(5.30), 환경/공해(5.40), 인간적 흥미(6.00), 등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JIBS의 경우는 인간적 흥미(4.67), 생활정보(5.10)와 농수축산업(5.10), 정치/선거(5.76)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BS제주는 경제/산업(4.30), 제주MBC는 정치/선거(5.30), JIBS는 인간적 흥미(4.67) 유형의 뉴스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각 방송사들이 중요시 하는 뉴스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표 4-6> 방송사별 헤드라인 뉴스의 중심 주제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정치/행정	5(14.7)	12(33.3)	11(31.6)	28(28.0)
경제	12(35.3)	9(25.0)	7(23.3)	28(28.0)
사회	8(23.5)	7(19.4)	6(20.0)	21(21%)
문화/스포츠	1(2.9)	2(5.6)	1(3.3)	4(4.0)
생활흥미	2(5.9)	0(0)	2(6.7)	4(4.0)
범죄/사고	6(17.6)	6(16.7)	3(10.0)	15(15.0)
기타	0(0)	0(0)	0(0)	0(0%)
전체	34(100)	36(100)	30(100)	100(100)
$\chi^2 = 7.817 \quad df=10, p=0.647$				

다음은 헤드라인 뉴스에 포함된 뉴스를 대주제 분석유목별로 살펴보았다(<표 4-6>참고). 연구결과 제주지역TV뉴스는 정치/행정(28.0%)과 경제(28.0%) 관련 사안을 중요한 뉴스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으며, 그 다음은 사회(21%), 범죄·사고(15.0%)순이다.

방송사별로 중요시하고 있는 뉴스 주제를 살펴보면, KBS제주는 경제(35.3%), 사회(23.5%), 범죄/사고(17.6%) 등의 순이고, 제주MBC는 정치/행정(33.3%), 경제(25.0%), 사회(19.4%)등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JIBS도 제주MBC와 마찬가지로 정치/행정(31.6%), 경제(21.5%), 사회(14.7%)등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헤드라인 뉴스의 중심 주제를 방송사별로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4-5>와 <표4-6>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3개 방송사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정치/행정, 경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경질적 뉴스(hard news)를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생활정보, 복지/보건, 스포츠 등과 같은 생활 밀착적이고 서민적인 사안들은 가볍게 간주하는 보도관행을 보이고 있다.

뉴스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휴일에는 날씨와 휴일표정이 가장 먼저 제시되지만 평일 대부분은 정치뉴스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시적이고 서민적인 사안보다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경질적 뉴스사안이 주목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인 뉴스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1-2: 뉴스 정보원의 다양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정보원의 수

정보원의 수 분석은 뉴스가 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제주지역TV뉴스의 정보원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뉴스 1건당 평균 정보원 수를 산출해 보았다.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TV뉴스는 뉴스 1건에 평균1.47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제주는 뉴스 1건당 평균 1.49개의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MBC는 1.35개, JIBS는 세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수인 1.61개의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송사별로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했다. 분석결과는 <표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뉴스 1건당 평균 정보원 수

(단위: 개)

구분	정보원 총수	기사1건당 평균 정보원수
제주MBC	272	1.35
KBS제주	247	1.49
JIBS	334	1.61
총계	853	1.47

<표 4-8> 방송사별 뉴스 1건당 정보원 수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1명	92(55.8)	137(68.2)	125(60.4)	354(61.8)
2명	28(17.0)	27(13.4)	41(19.8)	96(16.8)
3명	17(10.3)	13(6.5)	22(10.6)	52(9.1)
4명	9(5.5)	8(4.0)	9(4.3)	26(4.5)
5명 이상	2(1.2)	2(1.0)	5(2.4)	9(1.6)
불확실	17(10.3)	14(7.0)	5(2.4)	36(6.3)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18.448, df=10, p=0.048$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주지역 TV뉴스에서 1명(61.8%)내지 2명의 정보원(16.8%)을 사용한 뉴스 비중이 전체의 78.6%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명(9.1%)내지 4명 정도의 정보원(4.5%)을 활용한 기사는 13.5%에 불과했다¹⁷⁾. 이를 방송사별로 비교해 보면 제주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 1명의 취재원을 사용하는 뉴스가 137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KBS제주는 4명의 정보원(5.5%)을 사용하는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았으며, JIBS는 2명(19.8%)과 5명 이상(2.4%)의 정보원을 활용한 뉴스의 비중이 타 방송사에 비해

17) 4-5명의 정보원을 활용한 뉴스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동정을 살피는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높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TV뉴스의 61.8% 정도가 1명의 정보원을 토대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뉴스가 한 명의 정보원만을 사용함으로써 균형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삼각확인(Triangulation) 균형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수치이다. 이는 제주지역 TV뉴스는 정보원의 수만을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2.5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중앙 3사에 비교하였을 때에도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김은주, 2002). 그러나 부산, 광주, 원주, 전주지역 TV뉴스에서는 평균 1.4개의 취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소라·마동훈, 2000). 제주지역 TV뉴스에서 사용하는 정보원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뉴스 1건당 평균길이가 가장 긴 JBS가 뉴스1건에 활용하는 평균 정보원의 수도 가장 많았다. 반면에 뉴스 1건당 평균길이가 가장 짧은 제주MBC가 정보원의 수 또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뉴스 길이가 길었을 때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사기간이 대선과 총선 기간과 겹친 관계로 정치/선거 관련 뉴스가 많았었는데 이들 뉴스가 뉴스 1건당 정보원의 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즉 정치/선거 관련 뉴스의 경우 공정보도를 위해 보통 3-5명 정도의 선거 입후보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선거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뉴스 1건당 평균 정보원의 수는 분석결과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정보원의 유형

뉴스보도에 얼마나 다양한 취재원이 활용되는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한결 같이 정부기관이나 관료가 절대적 다수를 점하며, 일반 시민은 극소수만 활용되는 편향성을 띠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은 정부 등 공식기관 또는 권력층에서 내보내는 정보 중심으로 뉴스가 배치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TV뉴스에서는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원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정보원에 대한 분석은 7개 유목, 즉 정부기관, 전문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외국/기자, 기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4-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기관(62.2%)과 기업(13.2%)이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의 75.4%를 차지한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시민(3.5%)과 전문가(4.9%) 그리고 외국/기자(4.9%)가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비율은 모두 합쳐도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방송사별 정보원의 유형 (대분류)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정부기관	134(58.3)	175(68.1)	190(60.3)	499(62.2)
전문가	11(4.8)	9(3.5)	19(6.0)	39(4.9)
기업	30(13.0)	31(12.1)	45(14.3)	106(13.2)
시민사회단체	22(9.6)	20(7.8)	34(10.8)	76(9.5)
일반시민(개인)	18(7.8)	6(2.3)	4(1.3)	28(3.5)
외국 및 기자	14(6.1)	7(2.7)	18(5.7)	39(4.9)
기타	1(0.4)	9(3.5)	5(1.6)	15(1.9)
전체	230(100)	257(100)	315(100)	802(100)

분석결과를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의존도는 제주MBC(68.1%)가 가장 높고 KBS제주(58.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에 대한 의존도는 KBS제주(7.8%)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JIBS(1.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JI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 JIBS가 각각 14.3%와 6.0%로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제주MBC의 경우 타 방송사에 비해 기업(12.1%)과 전문가(3.5%)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정보원 유형에 따른 방송사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방송사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정부기관, 일반시민의 의존도는 방송사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각 방송사별로 종합 정리해보면, KBS제주는 타 방송사에 비해 일반시민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부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가장 낮았다. 제주MBC는 타 방송사에 비해 정부기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외국 및 기자(2.7%)에 대한 의존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JIBS의 경우 기업(14.3%)과 전문가집단(6.0%) 활용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시민(1.3%) 선호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방송사별 정보원의 유형 (소분류)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중앙정부	17(7.4)	26(10.1)	29(9.2)	72(9.0)
국회 및 정당	16(7.0)	21(8.2)	29(9.2)	66(8.2)
지방정부	52(22.6)	63(24.5)	80(25.4)	195(24.3)
제주도의회	4(1.7)	13(5.1)	5(1.6)	22(2.7)
시민사회단체	10(4.3)	8(3.1)	10(3.2)	28(3.5)
이익단체	12(5.2)	12(4.7)	24(7.6)	48(6.0)
전문가	11(4.8)	9(3.5)	19(6.0)	39(4.9)
교육기관	18(7.8)	27(10.5)	19(6.0)	80(10.0)
법원/경찰	27(11.7)	25(9.7)	28(8.9)	64(8.0)
기업	30(13.0)	31(12.1)	45(14.3)	106(13.2)
일반시민	18(7.8)	6(2.3)	4(1.3)	28(3.5)
외국 및 지역	14(6.1)	7(2.7)	18(5.7)	39(4.9)
기타	1(0.4)	9(3.5)	5(1.6)	15(1.9)
전체	230(100)	257(100)	315(100)	802(100)

정보원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 분석해본 결과는 <표4-10>과 같다.

제주지역 3개 방송 모두 정부기관 중에서 지방정부(24.3%) 정보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업(13.2%), 교육기관(10.0%), 중앙정부(9.0%), 법원/경찰(8.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시민(3.5%), 제주도의회(2.7%)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방송사별로 정보원 의존도를 살펴보면, KBS제주는 일반시민(7.8%), 법원/경찰(11.7%), 시민사회단체(4.3%) 의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중앙정부(7.4%)와 지방정부(22.6%)의 의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주MBC는 제주도의회(5.1%), 교육기관(10.5%)이 타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 및 타지역(2.7%)이 낮게 나타났다. JIBS는 지방정부(25.4%), 기업(14.3%), 이익단체(7.6%)가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시민(1.3%), 제주도의회(1.6%)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지역 TV뉴스도 정부기관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보도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 중앙방송 3사 TV뉴스의 특징과 유사하게 특정 정보원이 편향되는 보도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 정보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제주지역 TV뉴스의 특정 이슈 보도에 관한 연구(이경미·최낙진, 2008; 최낙진, 2006)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TV뉴스는 공식적 정보원의 목소리는 잘 대변하고 있는 반면, 일반시민의 목소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어떤 방송사가 정보원 유형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KBS제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타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정보원 유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JIBS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정보원의 유형 분포가 가장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방송사별 정보원의 다양성 지수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다양성 지수	0.115	0.122	0.128

3) 연구문제1-3. 갈등뉴스의 경우, 보도관점의 다양성이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갈등뉴스의 관점제시양태

제주지역 TV뉴스 가운데 갈등뉴스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표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73건의 뉴스 가운데 분석대상인 갈등뉴스는 전체의 8.4%(48건)밖에 되지 않았다.¹⁸⁾ 갈등뉴스를 가장 많이 다룬 방송사는 KBS제주, 제주MBC, JIBS순으로 나타났다.

관점제시에 대한 분석은 완전 단일관점, 대체로 단일관점, 복합적 관점 등 3개 유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4-12> 방송사별 갈등뉴스 보도건수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합계
갈등뉴스	16(9.7)	18(9.0)	14(6.8)	48(8.4)
비갈등뉴스	149(90.3)	183(91.0)	193(93.2)	523(91.6)
총계	165(100)	201(100)	207(100)	573(100)

분석결과, 완전 단일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는 전체뉴스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가 33.3%, 대체로 단일관점의 뉴스는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단일관점인 뉴스(54.2%)와 대체적으로 단일관점인 뉴스(12.5%)는 사실상 단일시점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때 갈등뉴스의 대부분이(66.7%) 대개 한쪽의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방송사별 관점제시양태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완전 단일시점	8(50.0)	11(61.1)	7(50.0)	26(54.2)
대체로 단일시점	2(12.5)	3(16.7)	1(7.1)	6(12.5)
복합적 관점	6(37.5)	4(22.2)	6(42.9)	16(33.3)
전체	16(100)	18(100)	14(100)	48(100)

$\chi^2 = 1.959, df=4, p=0.743$

이를 방송사별로 분석해 보면 완전 단일관점의 뉴스는 제주MBC가 61.1%(11건)

18)공지형, 합의형 보도방식 89%, 갈등형, 분쟁형 보도방식이 11%인 다른 지역TV뉴스의 관행(박소라·마동훈, 2000)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로 타 방송사보다 그 보도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단일 시점의 뉴스 보도 비율도 제주MBC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복합적 관점 뉴스의 비율은 JIBS(42.9%)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KBS제주(37.5%), 제주MBC(22.2%)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관점제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했다. <표4-13>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방송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3개의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갈등이슈를 보도할 때 공통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뉴스에 끌고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제주지역 TV뉴스는 갈등사안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역 TV뉴스 수용자들은 TV뉴스가 제시한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해당 이슈를 이해, 해석, 설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뉴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국내 10개 종합일간지 1면 전체 기사 가운데 갈등기사만을 대상으로 관점제시 양태를 분석한 연구결과(박재영·이완수, 2007)에서도 완전히 단일 관점으로 구성된 기사(28.3%)와 대체적으로 단일 관점인 기사(43.4%)를 합한 사실상의 단일 관점의 기사는 10개 중 7개(71.7%)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복합적 관점의 기사는 28.3%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3사는 복합적 관점보다는 대체로 단일 관점 또는 완전히 단일 관점의 기사를 훨씬 많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뉴스들이 어떤 유형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4개의 유목, 즉 공개된 정보(스트레이트 뉴스), 단순 재가공 뉴스(스트레이트 + 단순 해설), 일회성 기획, 연속성 기획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표4-14>참고). 분석결과 갈등뉴스의 보도유형은 방송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에서 보듯이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보도식 뉴스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공개된 정보에 간단한 해설을 첨가하는 단순 재가공 뉴스가 22.4%, 일회성 기획 뉴스가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방송사별 갈등뉴스의 유형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공개된 정보	11(68.8)	10(52.6)	10(71.4)	31(63.3)
단순재가공	3(18.8)	6(36.8)	1(7.1)	10(22.4)
일회성 기획	2(12.5)	2(10.5)	2(14.3)	6(12.2)
연속성 기획	0	0	1(7.1)	1(2.0)
전체	16(100)	18(100)	14(100)	48(100)

$\chi^2 = 6.469, df=6, p=0.0373$

방송사별로 갈등뉴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JIBS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단순재가공 뉴스는 가장 적었다. 반면 제주MBC의 경우 스트레이트성 뉴스가 가장 적은 반면에 단순재가공 뉴스는 가장 많았다. KBS제주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와 단순재가공 뉴스의 보도 비율이 중간정도에 속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갈등뉴스에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뉴스가 많다는 것은 갈등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혹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개하는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 내용을 기자들이 추가의 분석이나 취재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제주지역 TV뉴스는 수용자들이 각종 사건과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슈의 발생과정, 원인과 배경,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소홀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 권위 있고 미디어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의 의견이 더욱 더 많이 정당화되고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관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MBC가 두개의 타 방송사에 비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통합을 위한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심스런 해석을 내릴 수 있다.

3. <연구문제2>에 대한 연구결과

1) 연구문제2-1: 뉴스의 길이(보도시간)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뉴스의 길이

연구문제2-1에서는 제주지역 TV뉴스의 뉴스 1건당 보도시간(길이)을 알아보기 위해 <표4-15>와 <표 4-16>과 같이 분석하였다.

뉴스 1건당 평균 보도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52.74초로 나타났고, 방송사별로 제주MBC가 46.65초로 가장 짧았으며 KBS제주 51.46초, JIBS가 59.26초로 가장 길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보도시간이 길수록 정보량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KBS제주와 JIBS가 제주MBC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송사별로 몇 초짜리 뉴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개 시간대(30초 기준)로 나누어 χ^2 검증을 하였다.

<표 4-15> 방송사별 뉴스 1건당 평균 길이

(단위: 초)

구분	뉴스 총 보도건수	평균
KBS제주	165	51.46
제주MBC	201	46.65
JIBS	207	59.26
합계	573	52.74

<표 4-16> 방송사별 뉴스 1건당 길이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30초이하	76(46.1)	89(44.3)	90(43.5)	255(44.5)
30-60초	44(26.7)	68(33.8)	46(22.2)	158(27.6)
60-90초	5(3.0)	4(2.0)	2(1.0)	11(1.9)
90초-120초	24(14.5)	27(13.4)	30(14.5)	81(14.1)
120초 이상	16(9.7)	13(6.5)	39(18.8)	68(11.9)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21.423, df=8, p=0.006$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초 단위로 나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뉴스의 44.5%가 30초 이하의 짧은 뉴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초-60초 사이 뉴스가 27.6%(158건)을 차지하여 1분 이하의 뉴스가 전체 뉴스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초-90초 사이의 뉴스는 1.9%(11건), 90초-120초 뉴스가 14.1%(81건), 120초 이상 뉴스는 11.9%(68건)로, 1분 이상의 뉴스는 전체의 27.9%(106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보면 30초 이하의 뉴스에서 KBS제주(46.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초-60초 뉴스의 경우 제주MBC(33.8%)가 타 방송사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0초 이상의 경우 JIBS(18.8%)의 보도량이 제주MBC(6.5%)와 KBS제주(9.7%)에 비해 두 배 가량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제주지역 TV뉴스는 대부분 1분이하의 짧은 뉴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주MBC의 경우 1분이하의 뉴스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민방인 JIBS가 2분 이상의 긴 뉴스를 타 방송사에 비해 좀 더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p < .05$), 후발주자인 JIBS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편성시간을 타 방송사에 비해 5-10분 더 많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타 지역 TV뉴스의 길이와 비교해보면 제주지역 뉴스 아이템 평균 길이(보도시간/ 52.74초)는 대구지방의 45.06초(배현석, 2002) 광주 46.7초, 원주 43초(박소라·마동훈, 2000) 보다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 57.2초, 부산 54.9초, 중앙방송 3사(KBS 77.4초, MBC 60.9초, SBS 88초) 그리고 미국의 WPVI 지역방송사의 평균 뉴스 길이인 75초에 비해(이준웅·황유리, 2004)서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2 : TV 뉴스의 유형은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뉴스의 유형

뉴스의 유형분석은 4개의 유목 즉 공개된 정보뉴스(스트레이트성 뉴스), 단순 재가공 뉴스(스트레이트+ 단순해설), 일회성 기획뉴스, 연속성 기획뉴스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표4-17>참고).

<표 4-17> 방송사별 뉴스의 유형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공개된 정보뉴스	117(70.9)	162(80.6)	136(65.7)	415(72.4)
단순 재가공	24(14.5)	23(11.4)	24(11.6)	71(12.4)
일회성 기획뉴스	17(10.3)	12(6.0)	36(17.4)	65(11.3)
연속성 기획뉴스	7(4.2)	4(2.0)	11(5.3)	22(3.8)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19.049, df=6, p=0.004$				

분석결과 제주지역방송 TV뉴스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는 스트레이트형 뉴스가 무려 7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개된 정보에 간단한 해설을 가미한 단순 재가공 뉴스(스트레이트+해설)가 12.4%, 원인과 과정, 결과, 대안 또는 반응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일회성 기획/심층 뉴스가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속성 기획/심층 뉴스는 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공개된 정보에 의존하는 스트레이트 형 뉴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자들이 공식적 정보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들을 제3자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한다거나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공개된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뉴스의 경우 제주MBC(80.6%)가 타 방송사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KBS제주(70.9%), JIBS(65.7%)등의 순이었다. 단순 재가공 뉴스는 KBS제주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JIBS는 일회성 기획뉴스와 연속성 기획 뉴스의 보도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JI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기획성 뉴스 보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타 방송사에 비해 뉴스 시간이 5-10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방송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TV뉴스의 경우 인터뷰 뉴스, 논평, 영상뉴스 등의 뉴스유형은 단 1건도 집계되지 않았다. 이

런 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 TV 뉴스의 유형이 단조롭고 획일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용자들의 기호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뉴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뉴스의 경우 정보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제시될수록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슈의 발생과정, 원인과 배경, 맥락 등이 잘 제시될 때 수용자들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재영, 2007)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지역 TV뉴스에서 스트레이트 유형의 뉴스가 많았던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3) 연구문제 2-3: 뉴스전달방식은 방송시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뉴스전달방식

<표 4-18> 방송사별 뉴스전달방식의 차이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앵커 단독	0	0	1(0.5)	1(0.2)
앵커+보도화면	119(72.1)	157(78.1)	135(65.2)	411(71.7)
앵커+리포터 목소리	20(12.1)	23(11.4)	34(16.4)	77(13.4)
앵커+리포터 현장녹화	26(15.8)	21(10.4)	37(17.9)	84(14.7)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10.346, df=6, p=0.111$				

TV뉴스의 보도방식은 6개 유목 즉 앵커 단독, 앵커+보도화면, 앵커+리포터 목소리, 앵커+리포터 현장녹화, 앵커+리포터 현장 연결, 앵커+리포터 스튜디오 출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TV뉴스는 앵커+보도화면으로 전달되고 있는 뉴스가 7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앵커+리포터 현장녹화 화면이 14.7%, 앵커+리포터

목소리로 전달하는 뉴스가 1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TV뉴스는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뉴스보다 그렇지 않은 뉴스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앵커가 생방송으로 현장의 기자와 연결하는 뉴스, 기자나 전문가 또는 정보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전달하는 뉴스 등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TV뉴스는 주로 앵커+보도화면에 의존하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사별로 뉴스 보도방식을 비교해보면 앵커+보도화면의 경우 제주MBC(78.0%)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KBS제주(72.1%), JIBS(65.2%)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앵커+리포터 목소리(기자의 현장등장 없음)와 앵커+리포터 현장녹화(기자의 현장등장 있음) 보도방식을 취하는 뉴스의 경우 JIBS의 보도비율이 두 방송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TV뉴스의 전달방식은 현장 취재를 위해 기자와 카메라를 투입하고 있느냐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즉, 수용자들이 느끼는 뉴스의 신뢰도와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민영방송사인 JI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뉴스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재정 및 인력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송사간 차이는 JI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보다 더 많은 뉴스시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앙 방송 3사 TV뉴스의 경우 기자와 앵커가 함께 등장하는 패키지 형식의 뉴스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장 직접 연결 방식과 스튜디오 출연 방식의 뉴스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제주지역 TV뉴스는 뉴스 전달방식이 매우 단조로우며, 기자와 카메라가 함께 현장에 투입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지역 방송 TV뉴스의 분석결과(배현석, 2002; 남궁협·안주아, 2004)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TV뉴스와 비슷한 보도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제주지역 TV뉴스에서 앵커+보도화면 방식으로 제시되는 뉴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주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기 보다 한국의 지역방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방송들이 중앙방송사들보다 뉴스제작에 재정 및 인력 투입을 적게 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방송사인 WPVI 방송사의 경우, 위성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에 있는 기자와 직접 연결하는 보도방식 비율이 26.6%(이준웅·황유리, 2004)로 나타나 우리나라 지역방송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구문제3>에 대한 결과

1) 연구문제 3-1: 영상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영상구성방식

보도화면이라고도 불리는(이종수, 1999) TV뉴스 영상은 5개 유목 즉 현장 생중계 화면, 사건화면, 구성된 화면, 상징 샷 화면, 자료화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4-19>참고). 그리고 제주지역 3개 방송사의 뉴스 보도화면이 방송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제주지역TV뉴스의 영상은 사건화면(47.1%)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료화면(32.5%), 상징 샷(16.4%), 구성된 화면(4.0%)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은 실제 사건이나 사안을 바탕으로 한 현장화면(사건화면)을 사용하는 비율이 47.1%로 나타난 반면에 뉴스 제작자들이 뉴스 내용에 적합하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화면을 사용하는 비율이 52.9%(영상자료화면 32.5%+ 상징화면 16.4%+구성된 화면 4.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하루에 보도되는 뉴스 가운데 절반 이상의 뉴스가 그날그날 방송사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방송사 내부에서 뉴스내용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분석유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자료화면의 비율이 7.74%인 전국 TV뉴스와 비교해 볼 때(이종수, 1999)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은 자료화면(32.5%)을 지나치

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방송사별 영상구성방식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사건화면	90(54.5)	87(43.3)	93(44.9)	270(47.1)
구성된 화면	5(3.0)	15(7.5)	3(1.4)	23(4.0)
상징화면	34(20.6)	30(14.9)	30(14.5)	94(16.4)
자료화면	36(21.8)	69(34.3)	81(39.1)	186(32.5)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23.830, df=6, p=0.001$				

방송사별 보도화면의 구성방법을 살펴보면, 사건화면(현장화면)의 경우 KBS제주(54.5%)가 타 방송사에 비해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MBC(43.3%)가 가장 적게 구성하고 있다. 그래픽 등으로 구성된 화면 비율은 제주MBC(7.5%)가 타 방송사들 보다 높았으며, 상징 샷의 이용률은 KBS제주(20.6%)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약 6%정도 높은 편이었다. KBS제주인 경우 상징 샷의 이용률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높은 것은 범죄/사고 유형의 뉴스를 타 방송사들에 비해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진다. 범죄/사고 뉴스의 보도화면은 대부분 경찰서의 깃발, 건물 등을 클로즈업하는 상징 샷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자료화면의 이용률은 JIBS(39.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MBC(34.3%), KBS제주(2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송사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KBS제주가 현장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연구과제이외에 뉴스 주제유형이 영상구성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했다. 주제 유형과 영상구성 방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건화면은 문화/예술과 사회 뉴스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료화면은 정치/행정, 생활홍미 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뉴스와 범죄/사고 뉴스의 경우 지자체와 검찰, 경찰, 법원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 건물, 근무 모습 등을 보여주는 상징샷 화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문제 3-2: 뉴스 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

<표 4-20> 방송사별 뉴스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일치정도)

(단위: 뉴스보도건수, ()안은 %)

구분	KBS제주	제주MBC	JIBS	전체
직접적 연관	93(56.4)	94(46.8)	109(52.7)	296(51.7)
간접적 연관	47(28.5)	58(28.9)	57(27.5)	162(28.3)
무관	25(15.2)	49(24.4)	41(19.8)	115(20.1)
전체	165(100)	201(100)	207(100)	573(100)
$\chi^2 = 5.600, df=4, p=0.231$				

뉴스내용과 영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뉴스 텍스트)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 연관이 전체 뉴스의 5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간접적 연관은 28.3%, 뉴스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상도 무려 2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TV뉴스 화면의 절반 정도가 실제 사건을 다루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나머지의 반은 모두 뉴스기관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화면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뉴스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도되는 영상은 그 사건이나 사안들을 직접 보여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직접적 연관 화면은 KBS제주(56.4%), 무관 화면은 제주MBC(24.4%)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적 연관 화면의 사용빈도는 3개 방송사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건화면이 많은 KBS제주의 경우 직접적 연관 뉴스가 타 방송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송사들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V.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 TV뉴스의 전반적인 보도관행을 밝혀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KBS제주, 제주MBC 그리고 JIBS 저녁 뉴스시간에 보도된 뉴스를 조사대상의 전집으로 삼았다. 다만, 7개월 동안 보도된 뉴스를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2주간의 뉴스 573건을 추출하여 연구의 표본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홉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뉴스주제의 다양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둘째, 뉴스주제별 보도서열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뉴스 정보원의 다양성 즉, 정보원의 수와 유형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넷째, 갈등뉴스의 경우, 보도관점의 다양성이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다섯째, 뉴스의 길이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여섯째, 뉴스 유형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일곱째, 뉴스전달방식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여덟째, 영상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아홉째, 뉴스의 내용과 영상의 연관성에 있어서 방송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 연구의 성과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뉴스주제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TV뉴스는 16개 뉴스 아이템 가운데 행정/지자체 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제/산

업, 범죄/사고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술/과학, 군사/국방, 인간적 흥미, 스포츠, 복지/보건 등의 보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방송사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KBS제주는 범죄/사고, 환경/공해 등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높은 보도비율을 보인 반면 정치/선거, 교육, 행정은 타 방송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주MBC는 행정/지자체 교육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 환경/공해는 타 방송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JIBS의 경우에는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 농수축산업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p>.05$), 각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뉴스주제 유형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사별 뉴스 주제의 다양성 지수를 보면, KBS제주의 경우 다양성 지수 수치가 가장 낮아 타 방송사들에 비해 주제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제주MBC의 경우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KBS제주와 JIBS에 비해 주제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별 뉴스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뉴스 주제 유형을 16개로 나누어 전체 뉴스 속에서 각 주제의 보도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인간적 흥미, 정치/선거가 1순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환경/공해, 경제/산업, 농축수산업 등이 2순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복지/보건, 교육, 인사동정 등은 전체 뉴스 중에 14-16번째 위치를 차지해 대개 전체 뉴스 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주제 간의 이러한 보도 서열 차이는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한 특이사항으로는 휴일에는 날씨와 휴일 표정이 가장 먼저 제시되지만 평일 대부분은 정치뉴스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뉴스에는 실용적이고 미시적이며, 생활밀착적인 사안보다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경질적 뉴스 사안이 더 많았다. 이는 제주지역 TV뉴스들이 정치관련 뉴스를 중요한 뉴스로 간주하는 중앙 방송의 TV뉴스 보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방송사 별로 뉴스 주제의 보도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 각 방송사가 중요시하는 뉴스 주제 유형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의 경우 경제/산업, 정치/선거, 인간적 흥미, 스포츠 등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BC는 정치/선거, 환경/공해, 인간적 흥미 등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JIBS의 경우는 인간적 흥미, 생활정보와 농수축산업, 정치/선거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p < .05$). 이러한 결과는 각 방송사들이 한정된 시장 내에서 서로 시청자 확보를 위해 뉴스의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정보원의 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TV뉴스는 뉴스 1건에 평균 1.47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제주는 뉴스 1건당 평균 1.49개의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MBC는 1.35개, JIBS는 3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1.61개의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명의 정보원을 토대로 한 뉴스가 전체의 61.8%를 차지한 반면, 2명의 정보원을 사용한 뉴스는 16.8%, 3명인 경우 9.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대부분의 뉴스가 한 명의 정보원만을 사용함으로써 균형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삼각확인(Triangulation) 균형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수치이다. 이는 제주지역TV뉴스는 정보원의 수만을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2.5개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중앙 3사에 비교하였을 때에는 적은 수치이지만, 평균 1.4개의 취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주·원주·전주지역 TV뉴스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정보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정보원의 유형 분석은 13개의 유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 유형은 지방정부기관이며 그 다음으로 기업/경제인, 교육기관, 중앙정부, 법원/경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 제주도의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았다. 즉 정부기관과 기업 등이 정보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전체의 75.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외국/기자가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비율은 세 가지 유형의 비율을 모두 합쳤을 때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TV뉴스는 공식적 정보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 반면,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KBS제주는 일반시민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부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가장 낮았다. 제주MBC는 타 방송사들에 비해 정부기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외국 및 기자에 대한 의존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JIBS의 경우 기업과 전문가 집단 활용도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시민의 등장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IBS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각 방송사의 정보원 분포를 비교해 보면, KBS제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타 방송사들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JIBS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정보원의 유형 분포가 가장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갈등뉴스에 제시된 관점들을 분석해 보면 전체 뉴스 가운데 54.2%가 완전 단일 관점의 뉴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합적 관점 뉴스가 33.3%, 대체로 단일관점의 뉴스가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단일관점과 대체로 단일관점의 뉴스 보도비율은 제주MBC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에 복합적 관점 뉴스의 비율은 JIB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송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3개 지상파 방송사들이 갈등이슈를 보도할 때 공통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갈등뉴스들이 어떤 유형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함께 분석했다. 분석결과 갈등뉴스 10개 중 6개 정도(63.3%)가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인 것으로 밝혀졌고, 공개된 정보에 간단한 해설을 첨가하는 단순 재가공 뉴스가 22.4%, 일회성 기획 뉴스가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JIBS가 스트레이트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단순 재가공 뉴스는 가장 적었다. 반면 제주MBC의 경우 스트레이트성 뉴스가 가장 적은 반면에 단순재가공 뉴스는 가장 많았다. KBS제주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와 단순재가공 뉴스의 보도 비율이 중간정도에 속했다. 방송사간에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일관점과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스트레이트

성 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제주지역 방송TV 뉴스들이 갈등적 이슈를 보도할 때 단일관점에서 스트레이트성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향된 보도태도는 뉴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여섯 번째, 뉴스의 길이(보도시간) 다양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방송TV 뉴스 1건당 평균 보도시간은 52.74초로 나타났고, 방송사별로 제주MBC가 46.65초로 가장 짧았으며 KBS제주 51.46초, JIBS가 59.26초로 가장 길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방송 TV뉴스들은 30초 이하의 짧은 뉴스(44.5%)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초-60초 사이 뉴스가 27.3%를 차지해서, 1분 이하의 뉴스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분 이상의 뉴스는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30초 이하의 뉴스에서는 KBS제주가, 30초-60초 뉴스의 경우 제주MBC가, 120초 이상의 경우 JIBS의 보도량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사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p < .05$),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은 JIBS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녁 뉴스의 편성시간을 타 방송사들에 비해 5-10분 더 많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뉴스보도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보량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JIBS가 KBS제주와 제주MBC보다 좀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JIBS가 복합적 관점의 뉴스 보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거 한다고 본다.

일곱 번째, 제주지역 TV뉴스의 유형을 보면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는 스트레이트성 뉴스가 10개 중 7개(72.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단순 재가공 뉴스가 12.4%, 원인과 과정, 결과, 대안 또는 반응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일회성 기획/심층 뉴스가 11.3% 연속성 기획/심층 뉴스가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성 뉴스는 제주MBC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KBS제주, JIBS등의 순이었다. 단순 재가공 뉴스는 KBS제주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JIBS는 일회성 기획뉴스와 연속성 기획 뉴스의 보도 비율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JIBS가 기획성 뉴스 보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전체 뉴스 시간이 5-10분 정도 더 길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방송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덟 번째, 뉴스의 전달방식과 관련 제주지역방송 TV뉴스의 보도방식은 앵커+보도화면으로 전달되는 뉴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앵커+리포터 현장녹화 화면과 앵커+리포터 목소리로 전달하는 뉴스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앵커가 생방송으로 기자와 현장을 연결하는 뉴스, 기자나 전문가 또는 정보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 영상뉴스 등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TV뉴스의 3분의 2정도가 주로 앵커+보도화면에 의존하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사별로 뉴스 보도방식을 비교해보면 앵커+보도화면의 경우 제주MBC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KBS제주, JIBS순이었다. 반면에 앵커+리포터 목소리와 앵커+리포터 현장녹화 보도방식을 취하는 뉴스의 경우 JIBS의 보도비율이 두 방송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시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아홉 번째, 제주지역 TV뉴스의 영상구성방식 보면 실제 사건이나 사안을 바탕으로 한 현장화면(사건화면)은 47.1%로 나타난 반면에 뉴스 제작자들이 뉴스 내용에 적합한 화면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화면은 52.9%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TV뉴스의 보도화면은 그날그날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현장 화면보다는 방송사 내부에서 뉴스 내용에 맞게 인공적으로 구성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구성된 화면중에서 자료화면(32.5%)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송사별 살펴보면, 사건화면(현장화면)의 경우 KBS제주가 가장 높았고, 제주MBC가 가장 적었다. 자료화면의 이용률은 JIBS가 가장 높고, KBS제주가 가장 낮았다. 그래픽 등으로 구성된 화면 비율은 제주MBC가 가장 높았으며 상징 샷의 이용률은 KBS제주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KBS제주가 현장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타 방송사들도 질 높은 방송을 위해 카메라와 같은 방송기자재 그리고 취재인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열 번째, 뉴스 내용과 영상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직접적 연관이 51.7%, 간접적 연관이 28.3%, 뉴스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상 또한 20.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스토리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상은 그 사건이나 사안들은 직접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뉴스내용과 화면이 일치하는 뉴스가 약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직접적 연관 화면은 KBS제주, 무관화면은 제주MBC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TV뉴스의 경우 뉴스의 주제와 정보원이 편중되고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방송 뉴스 모두가 행정/지자체 경제/산업 등과 같은 몇 개 주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방송사들이 지방행정관청 등과 같은 공식적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또한 지역 방송사 기자들의 취재범위가 대동소이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제주지역에 3개 방송사가 있지만 그들이 내보내는 뉴스의 대부분이 지역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별 뉴스 주제의 다양성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KBS제주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MBC가 가장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방송사가 중요시 하는 뉴스 주제의 유형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방송 뉴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 3개 방송사가 다루는 뉴스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KBS제주의 경우 경제/산업, 정치/선거, 인간적 흥미 등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BC는 정치/선거, 환경/공해, 인간적 흥미 관련 뉴스를, 그리고 JIBS는 인간적 흥미, 생활정보와 농수축산업, 정치/선거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 방송사들이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뉴스 자원을 갖고 시청자의 주목을 먼저 사로잡기 위해 차별화된 뉴스 편성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지역 방송사간에 시청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뉴스 경쟁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갈등뉴스의 경우, 완전 단일 관점의 뉴스가 절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지역 TV뉴스들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적 사안과 이슈를 보도할 때, 이해관계가 상이한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뉴스에 골고루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제주지역 TV뉴스는 갈등사안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TV뉴스가 제시한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해당 이슈를 이해, 해석, 설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것은 뉴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제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정책적 문제들의 해결이 어려운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 언론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당면 문제들을 해쳐 나가게끔 유도하는 정책의제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뉴스의 길이(보도시간)와 뉴스의 유형에 있어서 3개 방송사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초 이하의 뉴스의 경우 KBS제주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이트성 뉴스는 제주 MBC의 보도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2분 이상의 뉴스와 기획/심층 뉴스의 보도비율은 JIBS가 가장 높았다. 이는 JIBS의 저녁 뉴스 보도시간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 5-10분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3개 방송 모두 30초 이하의 뉴스와 스트레이트성 뉴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보도시간이 짧고 스트레이트 성 뉴스가 많다는 것은 제주지역 방송사들이 내보는 뉴스가 그만큼 정보량도 적고 뉴스 내용이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뉴스의 보도방식과 영상구성 방식이 획일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TV뉴스의 3분의 2정도가 주로 앵커+보도화면에 의존하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도화면의 경우도 실제 사건이나

사안을 바탕으로 한 현장화면(사건화면)보다 뉴스 제작자들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화면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자와 카메라가 함께 현장에 투입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TV뉴스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 영상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는 3개 방송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KBS제주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현장화면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뉴스 내용과 영상의 일치도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뉴스 스토리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상은 해당 사건이나 사안들을 직접 보여주지 못할 경우 시청자의 관심을 분산시켜 오히려 정보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곱째, KBS제주의 경우 2개 타 방송사에 비해 뉴스 정보원과 뉴스의 주제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화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 제주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인력과 재정적 측면에서 방송여건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방송 TV뉴스 보도와 관련 저널리즘 기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주제의 경우 행정/지자체, 경제 등과 같은 거시적 분야를 중요시 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복지/보건, 환경/공해 분야에 대해서도 그 보도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를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자연환경/공해 등과 관련된 뉴스가 적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 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을 발굴 보도하여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채널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보원의 경우 제주지역 TV뉴스는 정부와 같은 공식적 기관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원 활용 관행은 중앙방송 3사 TV뉴스에서 보이는 편향성이 제주지역 방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정보원들을 선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1명의 정보원을 토대로 한 뉴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삼각확인(Triangulation) 균형보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수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균형보도를 위해 가급적이면 2명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해야 하며 갈등적 사안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들이 뉴스 속에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슈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뉴스 길이(보도시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TV뉴스 1건당의 평균 길이는 몇몇 타 지역방송의 TV뉴스 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0초 이하의 짧은 뉴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스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되는 정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될 경우 제주지역의 많은 사건과 사안들이 피상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뉴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뉴스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뉴스의 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공식적 정보원이 제공한 공개된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형 뉴스보도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 서고 있다. 이것은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 TV뉴스의 한계라기보다는 신문보다 제작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매체적 특성, 한정된 뉴스보도시간 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주지역 TV뉴스의 심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TV뉴스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제주지역 TV뉴스의 전달방식을 보면 3분의 2정도가 주로 앵커+ 보도화면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앙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현장 직접 연결 방식, 스튜디오 출연 방식 등은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TV뉴스 영상의 절반정도가 뉴스제작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되어지는 화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재정적 지원 및 인력의 공급이 열악한 지역방송 TV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 프로

그럼 강화가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선행 연구자들의 지적을 감안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과 재정지원을 통해 다양한 뉴스제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 현장 영상을 늘리고 가볍고 가십(gossip)적인 사안의 경우 영상 제시 없이 뉴스를 보도하는 외국 방송사들처럼 좀 더 변화있는 보도 포맷을 개발한다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현장성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부언한다면, KBS제주의 경우 타 방송사들에 비해 뉴스 정보원과 뉴스의 주제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화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제주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인력과 재정적 측면에서 방송여건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방송사들도 저널리즘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질 높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타 연구를 위한 제언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통시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TV뉴스 보도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없었다. 차후에는 제주지역 방송의 뉴스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를 동시에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KCTV 방송사 또한 제주지역 지상파 3사와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 제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것 또한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차후에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의 뉴스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할 때 KCTV의 뉴스를 비교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뉴스의 보도 문제는 뉴스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특히 지역방송사의 로컬프로그램의 제작 여건과 외부환경사이의 상호작용등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했지만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이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일 수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제주지역 3개 지역방송의 뉴스 보도관행을 비교해 보면 뉴스의 주제, 정보원, 관점, 뉴스의 전달 방식 등에 있어서 방송사들 간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뉴스 1건당 평균 길이, 사건화면의 사용정도, 뉴스의 심층성 등은 3개 방송사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들 간의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것도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을 저녁뉴스에 한정함으로써 비교적 전체 뉴스 길이가 긴 아침 뉴스를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제주지역 방송의 발전과 다양한 뉴스 보도 관행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라도 아침뉴스와 저녁뉴스를 함께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방송 TV뉴스의 보도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의 주제, 정보원의 수와 정보원의 유형 등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도의 관점과 뉴스 영상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았는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갈등뉴스에 있어서 보도의 관점 그리고 뉴스 영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빈약한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만석(1999). 「텔레비전 뉴스보도 대안 모색 연구」.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강명구(1990). 한국TV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TV뉴스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강상현·채백(1996).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고영철·최낙진(2006). 제주지역 신문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2호, 5~42
- 고영철(2001).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 가정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언론학보」, 47권6호, 165~193
- _____ (1998).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및 '감귤생산조정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9집, 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229-261.
- 권혁남(2001). TV방송의 사회갈등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5-1호, 45~84.
- 김영석(1993). 뉴스제작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4호, 69~97.
- 김우룡(1993). 「방송보도론」.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02).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원용(1991). 전통적 관점에서 본 뉴스 선택 연구. 「한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서울: 나남.
- _____ (1992). 「미디어 사회학」. 경기도: 나남.
- 김재영(2004).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37~442.
- 남궁협·안주아(2007). 지역방송 뉴스양식 및 보도시스템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지상파TV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 3호, 81~115.

- 박경숙(2002). 집단 갈등이슈의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2호, 310~40.
- 박소라·마동훈(2000). 『지역방송 뉴스 비교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용규(1996). 한국 신문 취재보도 체제 개선 방안. 『언론연구』, 5호, 87~140.
- 박재영·이완수(2007). 『한국 신문의 1면 기사: 뉴스평가지수를 적용한 신문별·
연도별 비교』.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천일(1995).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 과정과 통제 매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한
국KBS, SBS와 미국 CNN의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제7호, 70~
97
- 배현석(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_____(2002). 지역TV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공중파 TV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4호, 141~176
- 백선기(1997). 『교양언론학강좌』. 서울: 범우사.
- 부경희(1995). 『TV뉴스 보도의 국제비교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손승혜(1999). 『TV저널리즘과 뉴스가치(1): 한국·영국·미국의 TV뉴스 분석』. 서
울: 한국언론재단
- 심훈(2005). 20세기 하반기의 미 신문 1면 보도에 대한 다양성 분석: 뉴스토피카
정보원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30호, 175~282.
- 윤석민(1995). 다채널 TV 상황하에서의 TV 뉴스 시청. 『언론과 사회』, 제7
호.
- 유세경(1994). 『뉴스 표현의 측면에서 본 보도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_____(2002). 시장성에 따른 지역 텔레비전 뉴스보도 분석. 『방송학 연구』.
- 유선영외(2006). 『2006 국민의 뉴스소비.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윤호진(2004). 『한국·영국·일본 공영방송 저녁종합뉴스 비교분석』. 서울: 한
국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경미·최낙진(2007).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
연구』. 45-1호, 97~129.
- 이민웅(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나남.

- 이은미·이종수(1995). 공중파TV와 케이블TV 뉴스 비교분석 : KBS, MBC, SBS, YTN 뉴스 비교분석. 『다매체 다채널시대 TV뉴스』.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이재경(2004). 한국 TV 뉴스양식과 취재시스템-그 특성과 한계 전환기의 한국 언론. 『한국언론학회』.
- 이재경·김진미(2000).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2호, 160~181
- 이재영(2002). 『저널리즘 평론-한국 TV뉴스 양식, 그리고 앵커제도』, 통권14호,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종수(1999). 텔레비전 뉴스영상 구성: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텍스트의 연관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219~252.
- 이준용·황유리(2004). 한국형 방송뉴스 도식의 발견 : 뉴스의 내용적이며 구성적 특성과 뉴스 제작 시스템. 『한국방송학보』, 통권 18-3, 232~285
- 이창현·손승혜(1999). 뉴스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제44-1호, 412-440
- 이창현(1993).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이용 및 회피동기의 유형과 가능성 검증. 『방송학 연구』, 제4호.
- _____(2000). 텔레비전 뉴스아이템의 채널간 중복률과 정보채널 및 내용적 특성. 『한국언론학보』, 48권1호, 189~206.
- 임영호·이현주(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1호, 300~330
- 장호순(2001). 한국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2001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정상윤(2007). 지역방송의 로컬리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정책적 방안. 『지역방송 백서』. 방송협의회.
- 전환성(2000). 디지털 위성방송시대의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지역발전 정책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조영현(2002). 『수용자의식 조사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주정민·박복길(2007). 지역방송 뉴스특성, 구성방식과 지역성 구현과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호, 304~327.

- 주정민(2004). 지역방송 뉴스의 지역성과 지역주의: 지역방송 뉴스와 수용자.
『저널리즘 평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 주정민·임동욱 외(2007). 『방송통신융합과 지역방송』. 파주: 한울.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2006). 『신문도 TV도 죽었다』. 서울: 시사미디어.
- 차배근(1995).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최낙진(2006). 제주지역 방송뉴스의 다양성: 특별자치도 관련보도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0집, 69~108.
- 최민재(2005). TV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TV카메라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5년 여름호, 323~349 서울: 방송위원회.
- _____(2006). 『TV뉴스와 영상이미지』.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진만·설경아(2000). 텔레비전 뉴스의 연성화에 관한 연구: KBS제주1, 제주MBC, SBS의 주시청 시간대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5-3호, 333~366.
- 한진만(2006). 지역방송의 편성과 지역성: 춘천지역 방송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권, 1-29.
- 한국방송개발원(1993). 『국내지역방송 프로그램 및 시청자 의식조사 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한국언론재단(2000). 『수용자 의식조사-제10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홍기선의(2007). 『방송영상 미디어의 이해』. 경기도: 나남.

<학위논문>

- 김영철(2006).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 연구-제주지역 TV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02). 『TV뉴스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제시방식에 관한 연구;한국 방송 3사의 저녁뉴스와 미국NBC Night News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수근(1988). 『한국의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으로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원락(1991). 『한국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수성(2002). 『지역방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시청자의 지역방송 시청행태를 중심으로』. 경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1999).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 시청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수근(2002). 『지역TV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시청행태 및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 문헌

- Altheide, D. L.(1987). The format of TV Network News. in Vidal-Beneyto and Dahlgren(eds.) *The Rocused Screen*
- Bill Kovach & Tom Rosenstiel(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종욱 번역(2004).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 한국언론재단
- Clark, J. (1960). 'A Study of the Use of Wire Service Copy by Iowa Evening News-papers which Receive Wire Service Copy only from the Iowa-Nebraska Circuit of the Associated Press', Unpubl. Ph. D. dissertation(University of Iowa).
- Crigler, A. N., M. Just, & W. R. Neumam(1994) "interpreting Visual Versus Audio Messages i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4(4). Autumn.
- Cutiin, M.(1993). Packaging Reality: The influence of fictional forms on the early development of Television documentary. *Journalism Monographs*, 137.
- Daniel Riffe & Stephen Lacy, Frederick G Fico(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Lawrence Asscoiates, Inc. 배현석 역(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Dijk, V. (1988), "News analysis",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ans, H.(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w York: Pantheon Books
- Griff, M. (1992). Looking at TV news: Strategies for research. *Communication*, 13, 121-141.
- Hansen, a., S. Cottle, R NEgrine & C. Newbold(1980), *Mass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London: MACMILLAN press institute.
- Haws, D.(1991). Minorities in the Newsroom and Community: A Comparison. *Journalism Quarterly*, 68, 764~771
- Hermam, E. S., & Chomsky, N.(1988)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New York: Pantheon Book
- Katz, E., H. Adoni & P. Parness(1977) "Remamverring the News-What the Picture adds to Recall," *Journalism Quarterly*, 54. pp. 231-9.
- Kress, G.(1983), "Linguistic and Ideological Transformatation in News Reporting" in Dawis, H. & P. Walton(eds.), *Language, Image, Media*, New York : St. Martin's Press
- Lacy, S. & Coulson, D. C.(2000). Comparative Case Study: Newspaper Source Use on the Environmental Beat. *Newspaper Researarcb Journal*, 21, 1, 13~25.
- Lippmam, W.(1961), *public Opinion*, New York: The Macmillan col.
- M. McCombs & D. Shaw(1972). "The agenda-setting research: An assessment of the priority ideas and problems: in G. C. Wolhot & H. de Bockl(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 Book*, 2, Sage.
- Paletz, D. L., & Entrmam, R. M. (1981). *Media, power, politics*. NY: Free Press.
- Sigal, L. V. (1987). Who ? : Sourcs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ndson, M.(Eds.), *reading the new*. Now York: Pantheon Books
- Sigal, L. V.(1973). *Reports and Officials*. Lexington, MA: D.C. Heath.
- Stempel, G. (1952). Sample Size for Classifying Subject Matter i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Summer, p.333.

[Abstract]

**Research on the District-TV-broadcasted News Information Routine
- According Focus on the News Programs of Three Jeju District Ground Cable
Broadcasting Companies -**

J-Hyon Lee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District news reports a big help for local communities are flashed like spears on the TV screen. The community's visual of district news reports the major and minor incidents in the community and allows many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o understand their community.

In this research, it was examined of how Jeju district broadcasting incorporates information in its news reports and how some sort of form it was reported.

For this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2007 to April 30, 2008, the evening TV news programs of Jeju district's three ground cable broadcasting companies were analyzed during two weeks of the seven-month research. The information and report format, and image composition metho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576 cases of gathered news

First, to identify the various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Jeju district TV news programs were examined by the type of central motive, the reporting order of the motive, the number of information personnel, the type of information personnel, and the viewpoint presentation state of conflict news aired through the broadcasting company. Af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shows that the TV news programs of the three Jeju district ground cable broadcasting companie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New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s has

been reported the most.

(2) Their politics/election and human-interest news are concentrated highly which is reported in the early part of the programs. The news on materials, health,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re repor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programs, where their concentration is relatively low.

(3) As for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personnel to gather news reports, a news case party uses an average of 1.47 information personnel.

(4) The district government's information personnel appear most often in the news reports, but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citizens appear only minimally, thus giving an impression that the news reports are biased.

(5) In the conflict news, a singular viewpoint was most often presented, with mostly public materials delivered simply through straight news reporting. As for the variety of news information presented during the broadcasting time, the statistics do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majority of the news information in the list.

If you look through the observation employed by the Jeju district TV news programs that was conducted from the report format, the following data were obtained.

(1) 52.74 news reports averaged 14 per day are organized daily.

(2) Much of the public information was reported straight.

(3) As for the news notification method, most of the news reports were delivered by the anchors from the newsroom rather than by the news reporters from the actual site of the incident being reported.

Based on the foregoing, many differences can be seen between the Jeju district TV news programs and the national news programs statistically. If the whole news program and the reporting time were lengthy or the average length of the news reports was high, there would be numerous amount of report delivered. Furthermore, the rate at which the journalists and the reporters transmitted the news together was even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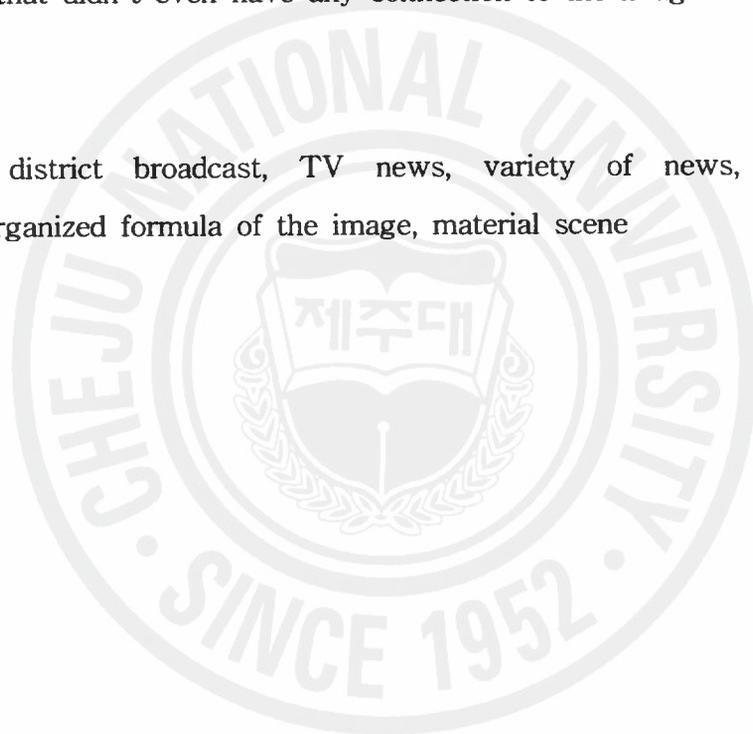
The analysis of the images presented in Jeju district's TV news program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1)As regards of the organized scenes that were used in the news reports, half of the news reports presented images featuring the scene of the incident being reported, and the other half presented images featuring the news writers or news anchors.

(2)Among the organized scenes, the data scene was used most often.

(3)Half of the images that were shown showed matching news information, and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ews reports presented news information that didn't even have any connection to the image.

Subject: district broadcast, TV news, variety of news, information personnel, organized formula of the image, material scene



【부록 : 코딩지】

1.날짜: 월/일

2.방송사 1)KBS제주 2)제주MBC 3)JIBS

3. 요일 01)월 2)화 03)수 04)목 05)금 06)토 07)일

<연구문제1-1>

4. 뉴스의 중심주제 (1개만)

01)정치/선거 - 대통령, 정당활동, 정치인, 국회, 선거, 재야및 학생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치의 성격을 띤 활동, 의회활동

02)행정/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활동 등

03)통일/북한

04)국제 : 국제관계, 외교활동

05)군사/국방 : 해군기지 관련, 군 훈련, 군대, 군인사등

07)경제/산업 : 노사대립, 경제정책, 기업관련, 경제단체 소식, 금융, 증권등

08)생활정보 : 백화점 세일, 단수 안내, 행사 안내, 여행정보, 교통정보 등

09)농수축산업 : 농.어촌 관련 기사, 농수축산물 가격, 농수축협등

10)기술/과학 :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교류문제, 과학박람회, 기능 올림픽등

11)환경/공해 : 오염, 쓰레기 문제 등

12)교육 : 사.공 교육, 교원 및 입시 등,

13)문화/학술/예술: 문화. 학술행사, 세미나, 공연, 시상식, 축제, 문화단체행사, 초청강연 등

14)스포츠:

15)복지/보건/의료: 의료보험, 복지시설, 의료지식, 주택문제, 노인.빈민 대책/ 불우 청소년 대책/ 영세민 문제 등

16)범죄/경찰/사고/재난: 비리, 교통사고/ 해양 사고/ 재판 등,

17)인간적 흥미/미담/가십: 소년소녀이야기, 인간승리등 인간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뉴스

18) 인사동정 뉴스

19) 기타

5. 보도순서 -----()번째

6. 헤드라인 뉴스 포함여부

00. 헤드라인 뉴스에 포함되지 않음 01. 헤드라인 뉴스에 포함됨.

<연구문제1-2>

7. 뉴스의 정보원 유형(3개 까지-복수응답)

--	--	--	--	--	--

- 01) 중앙정부(대통령/ 행정부처, 장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 02) 국회의원 /국회 및 정당(한나라당, 민노당 등)
- 03) 지방정부(도지사/ 국장관계자, 특별자치도 기획단, 도청 실무담당공무원 등)
- 04) 제주도의회 또는 도의원
- 05) 시민사회단체 (환경연합/ 4.3유족회/ 제주문화예술 단체 등)
- 06) 이익단체(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단체, 대책위원회 등)
- 07) 전문가(제주발전연구소, 각종 연구소, 교수, 농업기술원, 아열대연구소 등)
- 08) 교육기관(제주대학교, 도교육청 등)
- 09) 제주법원/검찰
- 10) 경찰, 해양경찰
- 11) 기업/경제인
- 12) 일반시민
- 13) 외국 언론/외국인/ 타지역 언론, 타지역민
- 19) 기타(타언론사 인용 및 유출, 종교, 인터넷)

8. 취재원의 수 -----()명

9. 갈등뉴스 여부

00)비갈등뉴스 ---12번으로

01)갈등뉴스 --- 10번으로

10. 관점 제시 양태 (갈등사안만)

- 01) 완전히 단일관점 02) 대체로 단일관점 03) 복합적 관점

11. 갈등뉴스의 유형

- 01) 스트레이트 02) 스트레이트+해설 03) 일회성 기획/심층
04) 연속성 기획/심층 05) 사설/칼럼/논평 06) 인터뷰 07) 영상뉴스

<연구문제 2-1>

12. 뉴스의 길이 (방송시간) : ()초

12-1. 뉴스의 길이

- 01) 30초 이하 02) 30초-60초 03) 60초-90초 04) 90초-120초 05) 120초이상

<연구문제 2-2>

13. 뉴스 전달 방식

- 01) 앵커 보도화면없이 단독 클로즈업
02) 앵커+보도화면
03) 앵커+리포터 목소리 (현장등장없음)
04) 앵커+리포터 현장 녹화 (현장등장 녹화)
05) 앵커+리포터 현장 연결
06) 뉴스의 주인공 또는 전문가, 리포터 직접 출현

<연구문제 2-3>

14. 뉴스의 유형

- 01) 스트레이트 02) 스트레이트+해설 03) 일회성 기획/심층
04) 연속성 기획/심층 05) 사설/칼럼/논평 06) 인터뷰 07) 영상뉴스

<연구문제 3-1>

14. 영상구성방법

01) 현장생중계화면

01) 사건화면 : 실제 진행, 발생된 사건을 기록한 화면

02) 구성된 화면 : 실제 사건의 녹화장면이 없거나 뉴스의 내용상 사건샷이 불가능할 경우, 사진, 문서, 그래픽, 글자등을 사용하여 증거물로 예시되는 구성된 화면

03) 로케이션 샷 : 특정한 기관, 사람, 사건, 사물을 상징하기 위해 장소, 건물, 사람등을 커버샷으로 표현하는 것(예:주요관공서 건물외관, 부서, 사람의 명패, 깃발)

04) 자료화면 : 청각적 뉴스내용과 구체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 관련을 가진 과거의 화면.

<연구문제 3-2>

15. 뉴스 내용과 영상의 관계

01) 직접적 연관

02) 간접적 연관

03) 무관